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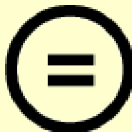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외국인 고급 중국어 사용자의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
- 후베이TV(湖北卫视)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의
토론 담화를 중심으로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중 국 학 과

WANG XIYING

국 제 지 역 석 사 학 위 논 문

외국인 고급 중국어 사용자의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
- 후베이TV(湖北卫视)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의
토론 담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현 태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중 국 학 과

WANG XIYING

WANG XIYING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일



위 원 장 문학박사 김창경 (인)

위 원 사회학박사 예동근 (인)

위 원 문학박사 김현태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II. 토론 담화의 개념적 정의와 연구 방법	6
1. 토론 담화의 개념적 배경과 정의	6
1) 토론의 정의	6
2) 토론 능력	8
3) 담화표지의 정의	10
4) 담화표지 구별	14
5) 담화표지의 유형	21
2.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23
1) 연구 대상	23
2) 연구방법	26
III. 『비정상회담』 토론 담화 담화표지 사용 분석(上)	31
1. 화제 결속	34
1) 담화 시작	36
2) 화제 연결	37
3) 연결 유지	43
2. 태도 표현	48
1) 주장하기	50
2) 동의하기	52
3) 부정하기	54

4) 반박하기	55
5) 의문제기	57
6) 근거들기	59
7) 제지하기	60
8) 반응하기	62
 IV. 『비정상회담』 토론 담화 담화표지 사용 분석(下)	63
1. 참여 유도	63
1) 흥미 유발	64
2) 반응확인	65
2. 순서 교대	68
1) 유지하기	69
2) 끼어들기	71
 V.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사용 오류 및 특징	75
1.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사용 오류	75
1) 형태적 오류	75
2) 의미적 오류	76
3) 화행적 오류	77
2.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사용 특징	79
1) 한정적인 담화표지 사용	79
2) 예의에 어긋나는 담화표지 사용	82
3) 영어 담화표지 사용	84
 VI. 결론	87

표 목차

표-1 : 담화표지에 대한 영어권 학자의 정의	11
표-2 : 『비정상회담』 토론 주제	25
표-3: 『비정상회담』 토론 참여자 정보	25
표-4 : 자료 전사 지침	27
표-5 : 『비정상회담』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기능 분류 ..	29
표-6 :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기능 층위별 사용 양상	32
표-7 : 화제 결속 담화표지 하위 기능별 사용 빈도	34
표-8 : 화제 결속의 하위 기능별 담화표지의 종류	35
표-9 :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37
표-10 : 담화표지 ‘就是’의 기능별 사용 횟수 및 비율	42
표-11 : 연결 유지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44
표-12 : 태도 표현 담화표지 하위 기능별 사용 빈도	48
표-13 : 태도 표현의 하위 기능별 담화표지의 종류	49
표-14 :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50
표-15 : 동의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52
표-16 : 부정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54
표-17 : 반박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55
표-18 : 의문제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57
표-19 :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59
표-20 : 제지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61
표-21 : 반응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62
표-22 : 참여 유도 담화표지 하위 기능별 사용 빈도	63
표-23 : 흥미유발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64

표-24 : 반응확인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66
표-25 : 순서 교대 담화표지 하위 기능별 사용 빈도	69
표-26 : 유지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70
표-27 : 끼어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72
표-28 : 영어 담화표지 사용양상	85



그림 목차

그림-1 :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기능 층위별 사용 비율	33
그림-2 :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횟수	80
그림-3 :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횟수	81
그림-4 : 『비정상회담』에서 사용하는 찬반 소품	83



외국인 고급 중국어 사용자의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
- 후베이TV(湖北卫视)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의 토론
담화를 중심으로

WANG XIYING

부경대학교 대학원 중국학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 고급 중국어 사용자의 토론 담화에 사용되는 토론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밝혀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토론 능력의 신장에 담화표지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중국어 사용자의 담화표지 사용양상을 파악하고 담화표지 교육에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중국 후베이TV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중국인 진행자와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들의 토론 담화이다. 『비정상회담』의 찬반 토론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정해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토론 담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국적의 고급 중국어 구사자들의 중국어 토론 담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후베이TV 『비정상회담』의 방송 중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 시즌 6의 8회분 중에 ‘제안 토론’ 부분의 찬반 토론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자료 전사를 통해 영상으로 되어 있는 자

료를 텍스트화 한다. 다음은 전사된 자료에 대해 양적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토론 담화에서 담화표지의 분포를 파악한다. 그리고 질적으로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기능별로 담화표지의 구체적인 사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하는 데의 오류 및 특징을 탐색한다.

토론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를 화제 결속, 태도 표현, 참여 유도, 순서 교대 등 4가지 층위로 나누고 다시 기능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화제 결속 층위에서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토론 담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제 도입’, ‘화제 전환’, ‘화제 마무리’ 등 기능의 담화표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 중 많이 사용된 것은 ‘然后(32.45%)’, ‘就是(21.81%)’ 등이다. 태도 표현 층위에서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我觉得’가 83.21%를 차지하고, 동의하기 중에 ‘对’가 47.27%, 의문하기 중에 ‘为什么呢’가 45.95%, 근거들기 중에 ‘比如说’가 65.22%를 차지한다. 참여 유도 층위에서 ‘반응 확인’ 기능의 담화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반응 확인 기능의 담화표지는 주로 ‘对吧’, ‘对不对’, ‘是不是’, ‘知道吗’ 등 간단한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순서 교대 층위에서 ‘끼어들기’ 기능의 담화표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가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토론자의 순서 교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로 접속사를 담화표지로 사용하여 순서 교대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토론자의 오류는 주로 형태적 오류, 의미적 오류, 담화적 오류 3가지로 나타났다. 형태적 오류는 문장의 위치하는 자리에서 발생하였다. 의미적 오류는 접속사를 담화표지를 사용할 때 앞뒤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데에 발생하였다. 담화적 오류는 담화표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의 특징은 주로 3가지 있다. 첫 번째, 담화표지 종류, 쓰임에 한정적이다.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장하기, 근거 들기 등 기능의 담화표지는 한 가지의 담화표지에 몰려 있었다. 두 번째는 예의에 어긋나는 담화표지 사용이다. 외국인 토론자가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의에 어긋나는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주장하기, 반응 확인, 반박하기 등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할 때 특히 그렇다.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더라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체면 손상하지 않게 발화하는 언어표현이나 전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영어 담화표지의 사용이다. 외국인의 토론 담화에서 ‘ok’, ‘no’, ‘anyway’, ‘so what’ 등 영어 담화표지가 사용되었다. 이는 외국인 토론자의 발화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국어 진행자의 발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언어의 병존은 특징으로 간주하고 오류로 보지 않는다.

『비정상회담』 토론 담화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토론자들이 담화표지 사용 분포, 특징 및 오류를 파악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담화표지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토론 기능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담화표지를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토론 상황에서 적절한 담화표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전략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문화를 고려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도 중국어 교육에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은 토론 담화표지 교육의 기초자료로 적용한다면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후베이 TV의 토크쇼 『비정상회담 (非正式会谈)』에서 고급 중국어 사용자의 토론 담화에 사용되는 토론 담화표지 사용양상을 밝혀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어 고급 학습자 및 학문 목적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다른 사람과 협의점을 탐색해 나가는 토론 능력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에 따라 토론 대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게 해주는 담화표지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토론은 서로 입장이나 주장이 다른 토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화의 형태이다. 토론 대화와 같은 특정한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곳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견해 차이가 있는 사람 간의 대화가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¹⁾ 학교에서 진행되는 조별 활동, 대학의 세미나, 회사의 회의 등 사회의 많은 측면에서 토론 능력은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학문 목적 중국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토론, 발표 등 학업 수행을 위한 말하기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학자들도 일찍부터 조사해 왔다. 이덕희(2003)의 연구에서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술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는데 토론하기는 학업 활동에서 필요도가 높다는

1) 배현주(2003)에서는 대부분의 토론 담화가 서로 다른 주장이나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견해 차이가 표면화되는 담화를 넓은 의미의 토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가 나왔다.²⁾ 따라서 토론 능력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수행에도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 추후 사회로 진출하여 직장 생활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에도 반드시 요구되는 말하기 기술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배경 지식, 사고 능력, 토론 전략 등 토론 능력의 요소 중에 언어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토론 전략이다. 토론 전략이란 견해 차이가 있고 입장이 대립하는 토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대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화 진행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가지 언어적 수단 및 언어 장치를 의미한다.³⁾ 이와 같은 언어 장치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담화표지라고 할 수 있다. 담화표지를 사용하면 토론자가 자신의 발화 의도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담화표지의 명칭은 의미 접속사, 문장 연결사, 논리 연결어, 암시사, 제시어, 담화조작의 기능어, 담화 전치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지만 담화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며 조직하고, 담화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을 돕는 전략적인 기능에 대해 학자들은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담화표지를 단서로 중국어 학습자에게 토론 전략을 교육한다면 학습자의 토론능력이 효과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토론 능력에 있어서 담화표지의 학습 및 교육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어 교육 분야에 담화표지에

2) 이덕희(2003)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업 수행의 요구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 언어영역의 중요도는 말하기>쓰기>읽기>듣기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학업 수행 기능으로는 전공어휘 확장, 세미나에서 발표하기, 토론에서 의견 제시하기, 논설이나 텍스트를 분석하기 등으로 나타나며, 토론은 높은 필요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박용한(2003), 『토론 대화 전략 연구』, 도서출판 역락.

관한 연구는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정확한 문법, 넓은 어휘량에 대한 요구가 강한 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언어 수준에서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특히 고급 수준의 중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법 능력과 어휘 능력만큼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담화표지를 비롯한 토론 전략이 부족해서 초래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점을 계기로 본 연구에서는 고급 중국어 사용자의 토론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토론 담화에서 나타난 담화표지를 전수적으로 조사하되 초점을 토론 전략을 반영한 토론 담화표지에 맞추어 논의하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국적의 출연자들이 상호 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TV 프로그램인 후베이TV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고급 중국어 사용자의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후베이TV <비정상회담>은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11명이 유창한 중국어로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TV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중국어 학습자가 담화표지 습득의 양상을 밝히고, 외국인 담화표지 사용의 특징 및 오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담화표지를 중국어 학습자 토론 능력이 신장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담화표지를 교육하는 방법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담화표지를 가장 먼저 접근한 학자는 영국의 언어학자인 Randolph Quirk였다. 그 후 1970년대에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은 영어권에서 등장하면서 많은 학자는 구어 담화를 언어 분석의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80년대에 화용론, 기능주의 언어학, 담화분석 등 연구방법론의 대두로 담화표지는 독립적인 연구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영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에 대한 담화표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영어권의 담화표지 연구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금까지 양적이든 질적이든 가장 많은 연구 성과물이 추적되어왔다. 널리 인정받고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Levinson(1983), Zwicky(1985), Schiffrin(1987), Watts(1989), Fraser(1990), Brinton(1996), Aijmer(2002) 등이 있다.

한국에서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 서두에 있는 학자로는 안주호(1992), 김선희(1995), 오승신(1995) 등이 있다. 한국 학자들이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담화표지의 구체적인 개별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 담화표지의 의미, 기능, 문법화 과정 등을 집중되어 있다. 그 대표로는 김영철(2005, ‘아’ ‘어’, ‘참’), 이한규(1996, ‘뭐’, ‘왜’, ‘그래’), 임규홍(1995, ‘뭐냐’, ‘있지’, ‘말이야’, ‘정말’), 이해영(1994, ‘글쎄’) 등이 있다. 이상의 국어학에서 활발하게 진행한 연구와 달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담화표지 연구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00년대에 이르러야 시작되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의 주제로는 학습대상 목록, 학습자 모국어와 대조 연구, 수업모형 설계 등이 있다.

중국에서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담화표지 연구의 선두학자로는 冉永平(2000)을 들 수 있다. 그는 화용적 시작에서 담화표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기능을 서술했다. 이후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어왔다. 첫 번째는 담화표지 본체론적인 연구이다. 冉永平(2000), 黄大网(2001) 등 학자들은 담화표지의 개념, 기원과 발전, 이론, 특징 등 언어학적인 시작해서 담화표지에 대해 연구를 했다. 두 번째는 담화표지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이고 개별 담화표지의 구체적인 사용 환경, 담화 속의 기능, 연결 방식 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张谊生(2002, ‘就是’), 王伟, 周卫红(2005, ‘然后’), 殷树林(2009, ‘这个’, ‘那个’), 刘丽艳(2011, ‘这个’, ‘那个’, ‘不是’, ‘你知道’, ‘我跟你说’)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외국인 대상으로의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 분야에서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는 먼저 말하기 교육의 일부분으로써 담화표지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교재에 제시되는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로는 吴迪(2016), 杨德霞(2010) 등이 있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로는 张晓明(2015), 施仁娟(2015) 등이 있다. 그 외에 많은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연구 주제는 유학생 담화표지 사용의 오류 분석이다. 张瑶佳(2014), 易萍(2013), 谢红宇(2018), 冯庆莉(2019) 등은 다양한 학습 단계,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범하는 담화표지 오류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어 담화표지 교육에 제언했다.

II. 토론 담화의 개념적 정의와 연구 방법

1. 토론 담화의 개념적 배경과 정의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하는 토론, 담화표지 등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개념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토론에서 담화표지의 기능과 필요성을 도출하고, 담화표지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며, 담화표지 교육 체계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1) 토론의 정의

토론은 담화 중의 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근거를 들어 각각의 의견을 내세우고 의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토론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 간에 차이가 다소 있어 보인다. 임철성(2009)은 토론을 참여자들이 어떤 논제에 대한 찬반을 논증과 논박의 과정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고자 하는 경쟁적인 담화 유형이라고 정의했다.⁴⁾ 그의 주장에 따르면 토론은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을 나눠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특성을 가진 담화의 유형이다. 임철성의 정의에서 토론의 경쟁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와 다르게 박숙자(2007)는 토론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나눠 각자 주장의 나음을 입증하되 경쟁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하

4) 임철성(2009), “남북 화법 표준화를 위한 한 모색”, 『화법연구』 15권, 한국 화법학회, pp.37-64.

는 ‘흑백논리’의 오류나 감정적인 태도로 나서는 문제 등이 찬반 토론을 경쟁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토론을 민주적인 형식이면서 공론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 본래의 목적인 ‘더 나은 대안으로 향해가는 공론화의 형식’을 재조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토론에서 소통의 맥락이 중요하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원래 주장은 수용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에 공론에 이르게 된다.⁵⁾ 즉 토론을 공론화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다.⁶⁾ 박숙자가 토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경쟁적인 특성보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차차 공론되기 때문에 토론의 상호 교섭성 특징이 두드러진다.

살펴본 바와 같이 토론을 공론화의 과정으로 보는 박숙자 등 학자의 주장에도 토론의 경쟁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토론 담화에서 공론이 이루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찬반 진영을 나누어 경쟁적으로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말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립적인 진영에 있는 토론 참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서로 설득하는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서로의 주장과 의견이 교섭되어 결국에 공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면 토론은 ‘경쟁성’과 ‘상호교섭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토론이라는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론이라는 어휘가 사전에

5) 박숙자(2007), “근대적 토론의 기원과 역할”, 『한국국어교육학회』 78권, pp.109-110.

6) 토론을 공론화 과정으로 보는 박숙자와 같은 입장인 학자로는 홍종화(2006), 김대영(2004) 등이 있다. 특히 김대영은 공론화의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형식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제기되지 않으면 공론의 형성은 쉽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찬반 두 진영이 나뉘지 않을 때 개인들은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자신이 참여하여 판단해야 할 주제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의 의미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여 논의함”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토론도 이와 같은 사전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의미로서의 토론이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말하는 토론이란 사람의 언어생활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적 입장에서 토론은 중요한 교육 요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적 상황에서 토론을 논의할 때 이 토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토론의 정의에 따라 교육의 목표인 토론 능력의 의미와 범위가 결정되고 교육내용도 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토론은 찬반 토론을 의미하는 협의적인 정의를 사용한다. 『비정상회담』의 담화자료를 바탕으로 담화표지에 대한 분석도 찬반 토론의 범위 안에서 진행할 것이다.

2) 토론 능력

토론 담화에는 질문, 대답, 제안, 설득 네 가지의 발화 유형이 포함된다.⁷⁾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여,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담화 형식은 정식적인 토론 대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서로 견해에 차이가 생기는 다양한 언어 상황에서도 유용한 담화 방법이다. 의견 충돌과 견해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담화를 통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합의점을 모색하는 토론 담화 방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7) 이기영(2017), “『비정상회담』의 한국어 토론 담화 양상 연구”, 『화법연구』 36권, p.36에서 재인용.

도 토론이라는 담화가 필수이다. 따라서 외국어 말하기 교육의 목표에도 토론은 협상, 발표, 연설 등과 함께 명시되어 있는 요목이다.

최복자(2004)는 토론 능력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해결할 때, 논증 담화를 거쳐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규명하고, 토론 능력에는 언어적 표현력, 협상 능력, 비판적 추론, 논증 능력과 사회적 기능 등을 포함한 종합적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허경호(2001)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듣기 능력, 조사 능력 등 4가지를 토론능력의 구성 요인으로 보았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능력은 토론 담화에서 상호 작용할 때 토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재적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은 제기되는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창조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듣기 능력은 능동적으로 다른 발화자의 말에서 증거나 은폐된 의미, 그리고 비언어적 메시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뜻하고, 조사 능력은 토론 담화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장영희(2009)는 토론능력의 구성요소로 표현 능력, 논증 능력, 자료 분석 능력, 조정과 협상 능력, 그리고 듣기 능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중에 언어교육과 관련된 표현 능력에 대해 반복되는 훈련 및 연습을 통해 신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 능력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토론 능력에는 토론 주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토론 참여자가 전달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표현 능력, 다른 토론 참여자와 협상, 합의할 수 있는 상호 교섭 능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 언어와 관련되고 언어교육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표현 능력이

다. 표현 능력은 토론 담화를 형성하는 여러 언어 장치와 언어 전략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담화표지는 담화구조를 형성하고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부드럽게 해주는 전략적 역할을 하는 담화의 요소이다. 토론 담화와 관련된 담화표지를 습득함으로써 토론 능력의 구성요소 중의 표현 능력, 내지 상호 교섭 능력의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담화표지의 정의

담화표지라는 개념은 영어권 학자들에 의해 먼저 제시되었다. 가장 먼저 이 개념을 제기한 Levinson(1983)은 ‘언어의 의미-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담화표지를 “주로 발화의 첫머리에 위치해 후행발화가 선행 발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신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진리조건적 의미가 포착되지 않는 단어 및 구 형태의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그는 영어의 담화표지 11가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담화표지가 담화의 부분적 연관성과 담화의 전반적 연관성을 살린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Frase(1997)은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담화표지를 연구한 결과, 담화표지는 연결사, 전치사구 등 구문법에서 추출이 가능한 개념이고, 후행 단락과 선행 단락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⁹⁾ 그 외에 영어권

8) …… there are many words and phrases in English …… that indic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n utterance and prior discourse. Examples are utterance-initial usages of “but”, “therefore”, “in conclusion”, “besides”, “actually”, “all in all”, “after all”, and so on. It is generally conceded each words have at least a component of meaning that resists truth-conditional treatment ……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번역본은 백지훈(2012)에서 이 원문에 대한 번역문을 인용한 것이다.

9) Frase(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vol.31,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 담화표지에 대한 영어권 학자의 정의

학자	정의
Schiffrin(1987)	화행이나 문장 또는 그보다 작은 언어적 단위를 묶어 주면서 담화의 선후 의존성 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는 담화의 의미적 일관성 성취를 위한 선택적 장치 이다. ¹⁰⁾
Watts(1989)	담화의 내부 단위 간에 논리적 일반성 을 제시하고, 맥락간의 의미 를 읽어 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¹¹⁾
Brinton(1996)	담화표지란 어휘적 의미가 없고 번역하기가 어려우며 품사의 부류에서 벗어나 통사적으로도 자유롭고 선택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면서 단일 형태에서 구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이루며 여러 담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표현이다. ¹²⁾
Aijmer(2002)	담화표지란 문맥상 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자가 발화를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표지판 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가적인 요소 이다. ¹³⁾

영어권 학자들이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담화표지가 의미론

p.946.

10) 백지훈(2012)에서 재인용. pp.30-31.

11) 위와 같음. pp.30-31.

12) 위와 같음. pp.30-31.

13) 김명희(2005)에서 재인용. p.14.

적으로나 어휘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둘째 담화표지는 담화의 선후 의존성이나, 논리적 일반성 등 맥락 간의 연결 관계 기능을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셋째 담화표지는 꼭 있어야 할 요소가 아니라 부가적, 선택적 요소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한국 학자들이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한국 학자들은 영어권 학자들이 담화표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바탕으로 1990년 중후반부터 담화표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펼쳤다. 안주호(1992)를 비롯하여 오승신(1995), 전영옥(2002), 김향화(2003), 박석준(2007), 안정아(2008) 등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나 개별적인 연구 등이 있다. 한국 학자들이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오승신(1995)은 담화표지에 대해 발화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단어와 통사적 구조를 형성되지 않으며, 형태적인 파생이나 활용도 하지 않고, 발화자 내면의 상태와 정신 작용을 표현하거나 발화자의 뜻을 전달하는 데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정의한다.¹⁴⁾ 전영옥(1998)은 담화표지에 대해 의미론 차원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표현이지만 기존의 의미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한 표현으로써 담화의 차원에서 새로운 기능을 하며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규명했다.¹⁵⁾ 이정애(2002)은 담화표지란 담화에서 잉여적으로 쓰이는 주변적인 표현으로서 기능어 및 내용어가 문화화를 통해 추상적인 화용적 의미를 갖게 된 담화적 장치라고 정의한다.¹⁶⁾

중국에서 冉永平(2000)은 담화표지는 주제적 의의나 의미적 의의를 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화의 의미적 요소가 되지 않으며 담화를 이해하는 데에 메시지 표기의 역할만 하고 담화를 이해하는 데에 절차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¹⁷⁾

14) 오승신(1995), “국어의 간투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5) 전영옥(1998),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호, pp.113-145.

16) 이정애(2002), “국어 고유어 접두사의 의미 연구”, 『우리말 글』 26권.

刘丽艳(2005)은 담화표지에 대해 상호작용적 담화에만 쓰이는 기능어로서 의미론적 뜻은 없고 절차적 의미만 가지고 있고 통사적으로 상대적인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인지주체의 화용적 의식을 구현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¹⁸⁾ 于海飞(2006)은 담화표지의 절차적인 의미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반면 개념적인 의미는 탈색된다고 보고, 그 통사적으로 출현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문자 성분이 아니지만 담화에서 화용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담화표지의 구별에 대해 담화표지가 명제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담화표지가 나타날 때 그 전후로 일반적으로 감지 가능한 비교적인 휴지가 있다고 밝혔다.¹⁹⁾

물론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은 언어,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들이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 즉 담화표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담화표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담화표지는 의미론적으로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상호작용적인 담화에서 문장 간의 연결 관계 기능을 하는 선택적인 담화 장치인 담화표지는 비교적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담화에서 행사하는 기능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기존 학자들이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의 틀 안에서 진행할 것이다.

17) 冉永平(2000), 〈话语标记语的语用学研究综述〉, 《外语研究》, 2000(4), pp.8-14.

18) 刘丽艳(2005), 〈口语交际中的话语标记〉,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19) 于海飞(2006), 〈话轮转换中的话语标记研究〉, 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

4) 담화표지 구별

a) 담화표지 식별 기준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담화표지라는 개념은 의미가 포괄적이며 개념의 범주 또한 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론 담화에서 어떤 표현이 담화표지이고, 어떤 표현이 담화표지가 아닌지에 대한 식별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실 그 식별 기준은 일부 이미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于海飞(2006)의 정의에서 담화표지가 나타날 때 그 전후로 일반적으로 감지 가능한 비교적 긴 휴지가 있다는 담화표지의 특징은 역으로 담화표지를 식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담화표지가 통사적으로 출현하는 위치가 자유롭다는 특징도 담화표지를 식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에 담화표지의 특징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담화표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담화표지의 식별 기준은 음운, 의미 그리고 문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한다.

(1) 음운

담화표지는 음운에 있어 구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 휴지 등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 담화를 진행할 때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부 담화표지는 그 전후에 있는 다른 문장 성분 사이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휴지가 존재한다.

예시문[1] 20)

(아르헨티나&스페인) 功必扬：为什么呢？因为他接了这个广告，可能他需要按照他的--，那些* (…)，另外一个人的要求去改变他的内容。

예시문에 있는 “那些”은 음운의 기준으로 이 담화에서 담화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담화의 주제는 블로거가 블로그 게시물에 광고를 삽입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功必扬은 블로거가 광고 위탁을 받으면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 게시글의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담화에서 “可能他需要按照他的” 뒤에 광고주를 뜻하는 어휘인 ‘金主’ 혹은 ‘甲方’이 이어질 것인데 이 어휘들은 상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功必扬은 “他的”의 발음을 길게 하고 시간을 끌었고, “那些”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앞뒤 발화의 연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那些” 뒤에 약간의 휴지가 있었으며, 결국 ‘金主’ 혹은 ‘甲方’을 대체하는 표현인 “另外一个人”을 사용하여 발화를 이어갔다. 이 발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담화표지인 “那些”의 앞에는 길게 발음한 것이 있고, 뒤에는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휴지가 있다. 이와 같은 선명한 특징 덕분에 이 발화에서의 담화표지를 쉽게 분석해낼 수 있다. 사실 음운 기준은 담화에서 담화표지를 식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담화표지를 분석할 때 음운 기준은 첫 번째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의미

20) 본 연구에서 논의할 때 사용하는 예시문은 모두 『비정상회담』 시즌 6의 토론 담화를 전사한 것이다.

담화표지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문장에서 개념적인 의미가 없고 절차적인 의미만 있다. 따라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접속사와 담화표지에 모두 사용 가능한 ‘然后’ 등이 해당 문장에서 접속사로 쓰이는지 담화표지로 쓰이는지 구별할 수 있다.

예시문[2]

(태국&인도) 天乐：觉得这个东西对你好，<对你>，<<对你>>不好，没有人来做决定的。比如说你买个护肤品，对吗？然后*这个护肤品可能对你的皮肤好，但是不一定对我的皮肤好。

예시문에 있는 “然后”은 이 담화에서 개념적인 의미가 없고 절차적인 의미만 있는 의미적인 기준으로 담화표지로 분석한다. 然后는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는 표현인데 접속사로 사용될 때 앞뒤 문장 간에 동작의 선후 관계,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나타내는 기능 및 의미를 갖고 있다. 天乐的 위 발화에 사용한 然后는 이와 같은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전후 발화를 부끄럽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의도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발화에 있는 然后는 담화표지로 구별한다.

(3) 문법

담화표지는 문법적으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전후에 있는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문법적인 단위로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담화표지가 문장에서 출현하는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도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담화표지를 식별하는 문법적인 기준이 된다.

예시문[3]

(미국) 欧阳凯：如果是娱乐，①那个*娱乐圈的vlog，②那个无所谓。但如果是他要传达很多信息和知识，而且有很多人去关注他，这有很大的问题。给你一个例子。在我的行业里面有一个词，叫GreenWashing，大家听过吗？就是洗绿，跟③那个*洗白一样的意思。

예시문③에서 ‘那个’라는 표현이 3번 나타났는데 문법 기준으로 이 중의 담화표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①번 那个은 뒤에 있는 娱乐圈와 문법적으로 결합하려면 娱乐圈은 명사이므로 那个은 명사를 수식하는 지시형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娱乐圈은 일반 명사와 다르게 지시형용사로 한정시킬 수 있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는 那个은 娱乐圈와 문법적으로 결합하지 않는 독립된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번 那个은 해당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에 无所谓는 술어임으로 那个은 앞 구절에 나타난 娱乐圈의vlog을 지칭하면서 해당 구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번 那个은 ①번과 같은 경우로, 위에 있는 洗白는 지시형용사로 한정시킬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③번 那个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 담화표지로 분석된다.

예시문[4]

(벨기에) 杰宁：那你可以看一下你的博主，你喜欢的KOL，他可能品味跟你也是一致的，那你可以看一下，可以试一下，他推荐的东西买一下嘛。如果说买合适了，那你多好的一个回报啊。买合适了，你相当于赚到了一个(…)又方便又有品味的一个(…)购物指导。节省你的成本啊。

예시문④에 나타난 담화표지인 ‘一个’은 문법 기준 중에 담화

표지가 문장에서 출현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으로 분석된 예시이다. 杰宁의 발화에서 ‘一个’라는 담화표지를 총 3회 사용했는데 이 중에 두 번은 명사 앞에 나타났고, 한 번은 형용사 앞에 나타났다. 이 예시를 통해 담화표지가 문장에 나타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문[5]

(副会长)杨迪：当然也有嘛。有的时候直播带带货，然后微博上发的最多的也就是综艺带带货。对，给综艺节目发一发，对。

예시문⑤는 담화표자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副会长杨迪의 이 발화에 쓰인 담화표지인 ‘对’는 문장의 앞에 한 번, 문장의 끝에 한 번 출현하여 상황에 따른 담화표지의 자유로운 위치를 보여줬다.

지금까지 단일 어휘로 구성되는 담화표지의 구별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외에 여러 어휘로 이루어진 구절 형태의 담화표지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일 어휘로 되어 있는 담화표지보다 훨씬 구별하기 쉽다. 물론 앞에서 논의한 음운, 의미, 문법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知道吗?’, ‘大家听过吗?’, ‘我想说一点’, ‘那这样的话’, ‘我们经常说’ 등이 있다. 이런 구절 등은 앞뒤 문장 구성요소와 결합하지 않고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존재하고, 구절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전후에 적당한 휴지가 존재하다. 또한 이와 같은 구절은 아예 아무런 뜻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문장 전체의 의미와 큰 상관이 없으며 문장 의미의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와 같은 구절 형식의 담화표지는 담화에서 담화 반응을 유도하기, 집중시키기, 주장하기, 가설하기 등

화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략적 담화 장치로 여긴다.

b) 다른 품사와의 구분

담화표지로 쓰이는 표현 중에 접속사나 대명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然后’, ‘所以’, ‘那个’ 등이 있다. ‘然后’나 ‘所以’는 접속사로 사용하는 경우 전후 문장 간의 계승 관계나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那个’는 지시대명사로 사용 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는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개념적의 의미가 없는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담화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와 다른 품사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접속사와의 구분

접속사와 담화표지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然后’, ‘所以’, ‘但是’ 등이 있다. ‘然后’는 접속사로 사용할 때 전후 문장 간의 계승 관계나 선후 순서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담화표지를 사용할 때는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명확한 의미는 없다. ‘所以’는 접속사로 전후 문장 간의 인과관계를 반영하는데, 담화표지로는 의견종합, 담화 마무리 등 화용 기능을 행사한다. ‘但是’은 접속사로 사용 시에 앞뒤 문장 간의 반전 관계를 강조하는데, 담화표지로는 반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쓰이기도 하고 담화순서를 빼앗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예시문[6]

(태국&인도) 天乐：当然你不会。对不对？所以呢我觉得，
①但是*我觉得，我如果我在他的店里买的话他会负责，②但是
是如果我相信你，从你买的话你不会负责。所以我觉得你只想

宣传他的东西，都不会负责，所以我觉得这个不好。

예시문⑥에 天乐은 다른 발화자한테 발화 순서를 이어받아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데 먼저 ‘所以’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곧 ‘所以’로는 자신의 반박하는 태도를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져 바로 ‘但是’로 교체하여 다시 발화를 이어갔다. 이 담화에서 두 번째로 사용되는 ②但是를 문법적인 기준으로 분석하면 담화표지가 아니라 접속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但是의 전 구절은 나는 그 사람의 가게에서 구매하면 그 사람은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이고, ②但是의 뒤 구절은 ‘홍보를 하는 블로거를 믿고 구매하면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짓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두 구절은 뚜렷한 반전 관계로 이어져 있어 그사이에 사용된 ②但是는 접속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2) 대명사와의 구분

담화표지로 쓰이는 표현 중에 대명사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这, 那 등 지시대명사, 我们, 你 등 인칭대명사 등이 있다. 따라서 음운, 의미, 문법 등 기준으로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담화표지로 쓰이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예시문[7]

(호주) 孟杰明：就是①我们都在卖东西，对不对。在我右边，这位唐总他在卖大理石，对不对。然后我的左边，②我们的*Angela天乐，他在卖服务和技术，对不对。所以我觉得KOL是完全一样的，他们也需要卖。他们也是他们的工作。所以我觉得你对看到一个博主发一个广告，你不要有任何反感，是必须做的嘛。

孟杰明的 발화에서 ‘我们’는 두 번 나타났는데 ‘①我们’는 문장의 주어로 ‘우리’를 뜻하고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②我们’은 뒤에 이어진 Angela天乐가 ‘우리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표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시문[8]

(会长) 大左：好。那*接下来的时间，我们就一起进入到今天的提案环节。提案环节之前我要问杨迪一个问题。杨迪那个*你微博或者是别的地方有没有带货？

예시문⑧에서 대명사와 담화표지로 구별해야 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 각각 첫 문장에서 나타난 ‘那’와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 ‘那个’이다. 두 문장에서 ‘那’와 ‘那个’는 지시대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那’는 담화표지로 화제 도입, 담화 시작을 표시하고, ‘那个’는 앞뒤 어절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기능으로 쓰였다.

5) 담화표지의 유형

담화에서 담화표지의 기능 및 사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담화에 나타나는 담화표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화표지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유형 분류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영어권 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중국 연구자도 이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영어권 학자는 Fraser(1999)인데 그는 담화표지를 대조 표기

(but, though 등), 서술 표기(and, in addition 등), 유도 표기(so, then, therefore 등), 주제 변화 표기(by the way, incidentally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중국 학자 중에 기능을 기준으로 담화표지를 분류한 사람은 冉永平(2000)인데 그는 담화표지를 화제 표기, 근거 표기, 추리 표기, 전환 표기, 언어방식 표기, 대조 표기, 자아 평가 표기, 언어 행위 표기 등 8가지로 분류한다.

담화표지의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거 외에 문장에서의 분포 위치에 따른 분류와 언어 형식에 따른 분류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于国栋, 吴亚欣(2003)는 담화표지가 문장에 출현하는 위치에 따라 상속형(承上型) 담화표지(好了, 这么说 등), 현재형(当前型) 담화표지(我知道, 我告诉你), 후속형(启下型) 담화표지(我想说的是 등) 등 3가지로 분류한다. 张黎(2017)는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위치의 성격에 따라 정위치 담화표지와 부정 위치 담화표지로 분류한다. 언어 형식에 따라 담화표지를 분류하는 학자로는 刘丽艳(2005)과 张黎(2017) 등이 있다. 刘丽艳(2005)은 담화표지가 원래부터 담화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인지 다른 어휘에서 변화되는지를 근거로 담화표지를 어휘형식 담화표지와 비어휘형식 담화표지로 분류한다. 张黎(2017)는 구성요소의 시작에서 담화표지를 단일 어휘 담화표지와 구절 담화표지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바탕으로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담화표지에 대한 분류는 기능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로 인해 영어권 학자의 기능별 유형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 학자와 冉永平(2000)의 기능별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토론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론 담화에 나타나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크게 ‘화제 결속’, ‘태도 표현’, ‘참여 유도’, ‘순서 교대’ 등 네 가지 층위로 나눴다. 각 층위 아래 구체적인 토론 기능으로 세분하여 토론 담화표지를 분류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국 후베이TV 『비정상회담 (非正式会谈)』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중국인 진행자와 고급 중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들의 토론 담화이다. 『비정상회담』은 2015년 4월 24일부터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2020년 1월에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으로 대면 녹화가 중단되었고, 그 후부터 비대면 온라인 회의의 형식으로 『비정상회담』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

『비정상회담』은 토론의 형식으로 구성된 TV 토크쇼인데, 4명의 중국인 진행자와 다양한 나라에서 온 11명의 고정 외국인 출연자 및 1명의 일일 출연 외국인 출연자가 정해진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전세계 문화상대론’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출연자가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뒷부분은 ‘제안 토론’인데 매주 주어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출연자들이 찬반 입장을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토론’에서의 찬반 토론 내용을 분석하는 대상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비정상회담』의 찬반 토론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정해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중국인 진행자들과 외국인 출연자들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토론 담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회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미있는 요소를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찬반 토론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기본에 충실한 토론 담화를 관찰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또한 편집과정을 거쳐 방송되기 때문에 원래 토론의 순서나 토론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토론 참여자의 발언을 보면 기본적인 맥락은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로 자기의 주장을 표출하기만 하는 대본 위주식의 토론이 아니라 출연자들은 발화 순서를 서로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담화가 이어지고 비교적 치열하게 논쟁하는 경우도 있다. 출연자들이 말 더듬거나 비문이나 오류를 말하는 것을 보아 발화내용이 제작진으로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이유는 <비정상회담>에서 다양한 국적의 고급 중국어 구사자들의 중국어 토론 담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나 학원 등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처럼 열 몇 개국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고급 중국어 사용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비정상회담』에서는 11명의 다양한 국적의 고정 출연자와 한 명의 일일 출연자가 모두 유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나 언어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아니라 외국인의 일반적인 토론 담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후베이TV 『비정상회담』의 방송 중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 시즌 6의 8회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최근에 방영되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 형식의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은 비대면 토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배제된다. 선정된 8회분의 토론 주제는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표-2 : 『비정상회담』 토론 주제

회차	방송 일자	주제 분야	토론 안건
1회	2020.1.17	대중 문화	原著党就一定比影视剧党高

			级吗？
2회	2020.1.31	회사 문화	公司总是在下班后团建，我可以不参加吗？
3회	2020.4.24	사회 예절	餐厅遇到婴儿哭闹，家长该不该被骂？
4회	2020.5.1	연애	只想暧昧不想恋爱的我，正常吗？
5회	2020.5.8	서비스 업계	服务行业一定要微笑服务吗？
6회	2020.5.15	가족	作为父母，我应该主动找毕业工作后还住在家里的儿子要生活费吗？
7회	2020.5.22	연애	高智商高学历的我，不敢尝试谈恋爱，现在想花钱报恋爱课，该去学吗？
8회	2020.5.29	블로그 문화	我关注的博主发广告，我非常反感想取关，这样的心态有问题吗？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토론 참여자는 중국인 진행자 4명과 고정 외국인 출연자 11명 및 일일 외국인 출연자 매주 1명이다. 전사하고 분석하는 총 8회를 기준으로 참여한 외국인 출연자의 국적, 이름 등 정보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표-3: 『비정상회담』 토론 참여자 정보

역할	이름	출신 국가	비고
会长	大左	中国(중국)	
副会长	杨迪	中国(중국)	
秘书长	陈铭	中国(중국)	
书记官	陈超	中国(중국)	

토론자 (고정 출연자)	宁大人	南非(남아프리카)	
	功必扬	阿根廷&西班牙 (아르헨티나&스페인)	
	OO	缅甸(미얀마)	
	钟逸伦	美国&意大利 (미국&이탈리아)	
	欧阳凯	美国(미국)	
	唐小强	土耳其(터키)	
	天乐	泰国&印度 (태국&인도)	
	萨沙	俄罗斯(러시아)	
	一之濑	日本(일본)	
	阿雷	意大利(이탈리아)	
	孟杰明	澳大利亚 (호주)	
토론자 (일일 출연자)	杰宁	比利时(벨기에)	2020.5. 29. 8회
	刘正曦	埃及&巴基斯坦 (이집트&파키스탄)	2020.5. 08. 5회
	广坦	法国(프랑스)	2020.5. 22. 7회

2) 연구방법

a) 자료전사

자료를 전사하기 전에 먼저 토론 담화가 가지는 구어적인 특징을 반영한 전사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토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담화표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담화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에 관련되는 강조나, 강세, 휴지, 길게 발음, 말 중복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이외에 다른 사항은 기본적인 전사 지침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 자료 전사의 지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4 : 자료 전사 지침

표기 내용	전사 표시	예시
발화자 정보	(국적)이름 :	(미얀마)OO :
말의 중복	< >, << >>	就是<你的>, <<你的>>一些主意, 一些建议嘛。
강조, 강세	~~~~~	我的意思是说
길게 발음	- --	原因是--, 他的创作内容肯定会有
휴지	(...) (3초)	我是知道你接的是因为钱, 我不(...),
반응 발화	{ }	{对, 对.}
불분명	(???)	(???)
담화표지	(진하게)	你知道吗
	(진하게)*	那个*

- 토론에 참가한 발화자의 국적,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발화순서 앞에 ‘(국적)이름:’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참가자인 OO씨의 발화 앞에 ‘(미얀마)OO:’로 표시한다.
- 말의 중복이 있는 경우 앞의 발화에서 겹침을 받는 부분에 < >, 뒤의 발화에서 겹침을 일으키는 부분에는 << >>로 표시한다.
- 강조나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강조되는 부분이나 강세가 넣은 부분에 물결선 밑줄을 쳐서 표기한다. 예를 들어 ‘我的意思是说’.
- 길게 발음하는 경우에는 길게 발음하는 부분의 뒤에 ‘-’를 넣

어 표기하고, 발음이 비교적으로 긴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 아무런 발화가 일어나지 않은 휴지가 나타나는 경우네는 휴가 전의 부분 뒤에 (...)를 넣어 표기하고, 휴지가 비교적으로 길게 되는 경우에는 ()안에 휴지의 길이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3초).
- 토론 참가자가 발화하는 도중에 다른 토론 참가자가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발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对, 对.}
- 잘 들리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기한다.
- 담화표지는 글씨를 진하게 하고 직선 밑줄을 쳐서 발화의 다른 부분과 구별한다. 다른 품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담화표지의 경우, 뒤에 *를 두어 구별한다. 예를 들어 지시대명사로 사용되는 那个는 ‘那个’로 쓰고,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那个는 那个*로 표기한다.

전사 예문:

(1) (미국) 欧阳凯: 但是*, 我不知道你作为一个博主有没有这个责任, 对吗。你一开始有接广告, 我不知道你的信息有被 (...) 有什么影响到。比方说你是科学家, 欸, 你反对全球变暖, 欸, 我发现后来你的赞助商是一个石油公司。这个怎么回事呢? 对吧? 一开始你接广告, 我不知道你传播的信息是不是有受到影响。所以我不能相信你说的话。

(2) (아르헨티나&스페인) 功必扬: <为什么他有反感>? <<为什么他有反感>>的原因是-- , 他的创作内容肯定会有一定的变化。

(미얀마) OO : {羨慕嫉妒恨}

(아르헨티나&스페인) 功必扬 : 为什么呢? 因为他接了这个广告, 可能他需要按照他的-- , 那些* (…), 另外一个人的要求去改变他的内容。他有这样的一些怀疑在里面。为什么他有这些怀疑? 这是很正常。我们现在我们在说他的怀疑是正确。我们不在说你不能接这个广告。所以*我觉得你的创作可能有一定的变化, 跟以前不太一样, 可能。当你的生存不必依靠<你的>, <<你的>>创作, 我觉得你才是更自由一些。

b) 자료 분석

토론 담화의 기능 층위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하여 외국인 토론자의 담화표지 사용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론 자료를 분석하고 토론 기능에 대한 분류는 다음 표에 목록화하였다.²¹⁾

표-5 : 『비정상회담』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기능 분류

기능의 층위	토론 기능	담화표지의 예시
화제 결속	담화 시작	我说一下我的观点
	화제 연결	然后
	연결 유지(얼버무리기)	那个
태도 표현	주장 하기	我觉得
	동의하기	对
	부정하기	不是那样的
	반박하기	我反驳一下你

21)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회담』 토론 자료를 전사하여 나타난 담화표지를 목록화 한 후 토론 담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토론과 관련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세부화했다. 분류의 틀을 구성할 때 심란희(2018),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73-77를 참고하여 중국어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였다.

	의문제기	这个是为什么
	근거들기	我举个例子
	제지하기	你不要打断我
	반응하기	我在听
참여 유도	흥미유발	你们想一想
	반응 확인	对吧
순서 교대	유지하기	让我说完
	끼어들기(순서 빼앗기)	我来回答

<표-5>에서 제시한 기능에 대한 분류를 기준으로 전사 자료에 대해서 양적과 질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본다. 먼저,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한 담화표지의 종류, 회수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토론 담화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을 크게 화제 계속, 태도 표현, 참여 유도, 순서 교대 등 4가지 층위로 나누고, 각 층위에서 다시 세분하여 기능별 담화표지의 종류, 사용 횟수 등을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그리고 특징 등을 살펴본다.

III. 『비정상회담』 토론 담화 담화표지 사용 분석(上)

이번 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제시한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수집된 『비정상회담 (非正式会谈)』 토론 담화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비정상회담』 토론 담화의 양상을 양적 및 질적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먼저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의 전체적인 사용을 보면, 본 연구에서 자료전사를 한 『비정상회담』 총 8회의 제안토론에서 외국인이 담화표지를 총 748회 사용하였고 사용한 담화표지의 개수는 총 176개였다²²⁾. 외국인 토론자들은 사용한 담화표지를 기능별로 보면 사용 횟수가 가장 많은 기능 층위는 태도 표현이고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기능 층위는 순서 교대이다. 세부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담화표지의 기능 종류는 화제 연결이고, 총 188회로 사용하였다.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가 많이 사용된 것은 담화의 조직화,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담화표지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我觉得’(114회), ‘然后’(61회), ‘就是’(28회) 등이 있다²³⁾. 외국인 토론자의 담화표지 기능 층위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2) 본 연구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통계는 『비정상회담』 시즌 6, 총 8회 중에 ‘제안 토론’의 토론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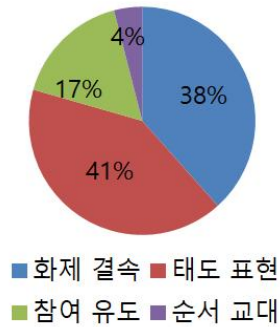
23) 중국인의 담화에서도 ‘我觉得’, ‘然后’, ‘就是’ 등은 사용 빈도가 높은 담화표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은 한 두 가지의 담화표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용 양상은 해당 기능의 분석 부분에 자세하게 수치를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다.

표-6 :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기능 층위별 사용 양상

	화제 결속	태도 표현	참여 유도	순서 교대	총
횟수	287	307	124	30	748
종류 수	42	88	27	19	176

먼저 외국인 토론자 사용한 담화표지의 종류 수를 보면 총 176개의 담화표지가 사용되었다. 다양하게 사용된 담화표지 중에 태도 표현 층위의 담화표지가 8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제 결속 층위에 42개, 참여 유도 층위에 27개, 마지막으로 순서 교대 층위에 19개가 사용되었다. 외국인 토론자 사용한 담화표지의 회수를 보면 총 748회 담화에서 담화표지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중에 태도 표현 층위에서 가장 많은 횟수인 88회로 사용하였고, 화제 결속 층위에서 42회, 참여 유도 층위에서 27회, 순서 교대 층위에서 19회로 사용하였다.

담화표지 기능 층위별 사용 회수



담화표지 기능 층위별 사용 종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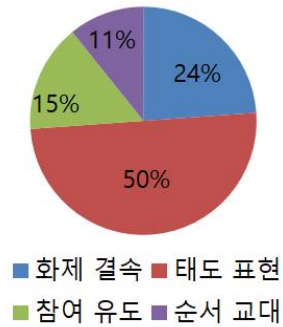


그림-1 :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기능 층위별 사용 비율

다음으로 <그림1>에서는 외국인 토론자의 기능 층위별 담화표지의 사용 비율을 제시하였다. 담화표지 사용 횟수의 경우, 태도 표현(41%) > 화제 결속(38%) > 참여 유도(17%) > 순서 교대(4%)의 순으로, 담화표지 사용 종류수의 경우도 태도 표현(50%) > 화제 결속(24%) > 참여 유도(15%) > 순서 교대(11%) 같은 순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담화표지의 사용 횟수와 사용 종류수 두 가지 측면에서 태도 표현 층위에 해당하는 담화표지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의 사용 종류 및 회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한 담화표지를 기능별로 목록화하고, 예문을 제시하여 담화표지 사용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화제 결속

담화표지 중에 화제 결속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는 화제를 전개하고 전환하며, 연결하는 역할로 사용되었고 담화의 연결성과 응집성을 실현한다.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이 화제 결속 기능의 담화표지는 총 42종류를 총 287회로 사용했다. 외국인 토론자들이 사용한 화제 결속 기능의 담화표지를 그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다시 ‘담화 시작’, ‘화제 연결’, ‘연결 유지(얼버무리기)’ 등으로 세분화였다.

표-7 : 화제 결속 담화표지 하위 기능별 사용 빈도

	담화 시작	화제 연결	연결 유지	총
회수	1	24	17	42
비율 %	2.38%	57.14%	40.48%	100.00%
종류 수	1	188	98	287
비율 %	0.35%	65.51%	34.15%	100.00%

<표-7>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국인 토론자들은 담화 시작 기능으로 1종류, 1회로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화제 결속 기능에 ‘화제 전환’, ‘화제 도입’, ‘화제 마무리’ 등 흔한 담화표지들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비정상회담』에서 ‘제안 토론’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비정상회담』에서 중국인 진행자가 토론 주제를 도입하고 담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중간에 화제를 전환하거나 마지막에 담화를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국인 진행자가 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이와 관련된 담화표지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이 토론 진행 과정에서 사용한 담화표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가 가장 많은 종류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횟수로 사용되었다. 주로 화제를 전개하거나 앞뒤 발화를 연결시키는 데에 사용했다. 연결 유지 기능의 담화표지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발언의 연결, 즉 유창성을 유지할 때 사용되었다. 외국인이 어휘나 표현 등이 바로 생각나지 않아 얼버무리는 데에 사용하는 ‘就是’, ‘那个’ 등이 있다.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이 사용한 화제 결속 층위의 담화표지를 기능별 목록화하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 화제 결속의 하위 기능별 담화표지의 종류

기능	담화 시작	화제 연결	연결 유지
1	我说一下我的观点	然后	一个
2		当然	那些
3		所以	你的
4		但是	什么
5		那这样的话	我们
6		ok	这个
7		但	那个
8		那	这些
9		就是	我们的
10		因为	呃
11		所以呢	干嘛
12		就	a-m
13		但是呢	那种
14		而且	怎么样
15		anyway	什么的
16		然后呢	就是
17		其实	怎么说呢

18		ok	
19		再说	
20		而且呢	
21		其实呢	
22		因此	
23		反正	
24		可是	

1) 담화 시작

토론 대화의 참가자들은 화제를 정하고 그 화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할 때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담화의 시작을 알린다. 그러나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의 제안 토론에서는 담화 시작의 역할을 중국인 진행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토론 담화에서 담화 시작을 알리는 담화표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사용한 것은 제6회에서 일본인 토론자의 발언에서였다.

예시문[9]

(일본) 一之瀬:(我说一下我的观点)。如果我是爸爸妈妈的话, 不会, 一定不会主动去要孩子的钱, 是因为怕他们伤感情, 他们伤心。

제6회에서 중국인 진행자가 토론 주제를 밝히고 나서 일본인 토론자가 첫 번째 발화자였기 때문에 담화 시작을 알리는 담화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6회를 제외한 다음 화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주로 바로 발언 내용을 제시하고 담화 시작을 알리지 않았다.

2) 화제 연결

화제 연결은 토론자들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작용을 이루면서 토론이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을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는 대부분 접속부사를 사용해 실현된다. 접속부사가 담화표지로 사용할 때 원래의 기능보다 앞뒤 발화에 연결짓고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사용한 화제 연결 담화표지를 실현순위로 정렬하면 다음 <표-9>와 같다.

표-9 :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 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然后	61	32.45%
2	就是	41	21.81%
3	就	12	6.38%
4	那	11	5.85%
5	当然	10	5.32%
6	其实	10	5.32%
7	所以	9	4.79%
8	ok ²⁴⁾	5	2.66%
9	然后呢	4	2.13%
10	但是	3	1.60%
11	因为	3	1.60%
12	所以呢	3	1.60%
13	但	2	1.06%
14	但是呢	2	1.06%
15	而且	2	1.06%
16	再说	2	1.06%
17	那这样的话	1	0.53%

18	ok啦	1	0.53%
19	anyway	1	0.53%
20	而且呢	1	0.53%
21	其实呢	1	0.53%
22	因此	1	0.53%
23	反正	1	0.53%
24	可是	1	0.53%

<표-9>에서 나타나듯이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然后’이다. ‘然后’는 접속부사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다른 일이 발생한다는 선후 관계를 의미한다. ‘然后’를 사용할 때, 앞 문장에서 ‘先’, ‘首先’이 사용되고, 그 뒤 문장에서 ‘再’, ‘又’, ‘还’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²⁵⁾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인 선후를 표현하는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앞 뒤 두 가지 일의 전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앞 사건이 없으면 뒤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뜻이다.²⁶⁾

그러나 ‘然后’는 담화표지로 사용할 때 연결성만 존재하고 주로 담화내용을 연결시키고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然后’ 앞뒤 문장 간에 시간적인 전후 관계나 논리적인 선후 관계가 요구되지 않다.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에 외국인 토론자들이 ‘然后’를 담화표지로 사용하는 예시를 살펴보면 그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4) 『비정상회담』에서 ‘ok’, ‘what’, ‘anyway’ 등 영어로 된 담화표지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Ⅴ장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사용 오류 및 특징’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25) 吕叔湘(1999),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26) 吕叔湘(2002), 《中国文法要略》, 沈阳: 辽宁教育出版社.

예시문[10]

(미국&이탈리아) 钟逸伦: <其实>, 我也是一个有很大社会焦虑的人。很经常不知道怎么去跟别人聊天。很经常怕接电话这些。但是我知道我的这一方面, 对我完成我想要完成的目标, 没有什么好处, 所以我用了很多年, 和很多力气去克服我的这个恐惧。<然后>我肯定还在克服的过程中, 但是我是想克服它。

예시문10에서 ‘然后’의 앞 뒤 문장 사이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나 논리적인 전후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 토론자가 자신의 단점을 열심히 극복했다는 내용과 아직도 극복 중이라는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해 ‘然后’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当然’이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当然我肯定还在克服的过程中’로 문장을 만들면 더 자연스럽지만, ‘然后’를 사용한 것도 오류로 볼 수 없다.

예시문[11]

(일본) 一之瀬 : 我之前也在便利店打工嘛。<然后>那时候的店里的规矩, <就是>我一定要微笑服务。一定要元气满满地服务。欢迎光临, 谢谢光临。

‘然后’는 담화표지로서 문장의 연결하는 기능 외에, 토론하고 있는 화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시를 들거나 더 설명하는 기능도 있다. 예시문11에서 사용한 담화표지인 ‘然后’는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앞 문장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다는 내용을 얘기하였고, ‘然后’ 뒤에 편의점의 규칙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다.

예시문[12]

(이탈리아) 阿雷 : oo说, <就>他觉得这个行为很渣, <然后>你觉得如果有一个人你非常喜欢她, 你会对她有很多的希望. 重要的是, 要跟这个人说好, 提前说好, 刚开始接触的时候你要就给他说明, 勇敢地跟她说, 我不想跟你谈恋爱. 我不想确定关系. <然后>你是不是渣男, 我觉得就取决于这个人的选择. 这个人觉得我同意, 那我们继续. 我不同意, 那就拜拜.

예시문11에서는 ‘然后’가 담화표지로서 2번 사용되었다. 2번 모두 전형적인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예시문 11처럼 앞뒤 문장 간에 대립, 부연, 인과 등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 ‘然后’를 사용하여 담화를 연결하고 응집성을 실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예시문[13]

(호주) 孟杰明 : 在英文里面我们有一个说法, “what is the cost of smile?” 天乐, 你帮我翻译一下. 就是‘笑容不用付钱’. 我觉得你不用出任何努力, 就可以笑一个, 对吧? 所以对我来讲是特别特别简单. 我以前在租DVD店打过工.

会长大左 : 你们现在还有租DVD的店?

(호주) 孟杰明 : 以前. 我们国家很偏僻嘛. 我们还在那个年代.

会长大左 : Sorry.

(호주) 孟杰明 : Anyway. A~m. <然后>也当过导游. 我一直要保持一个微笑. 可能有的时候四个小时五个小时, 一整天.

예시문 13에서 孟杰明은 자신의 경력으로 예를 들어 서비스 업체에서 미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DVD대여 가게에서 일을 해왔다고 얘기할 때 会长大左가 끼어들어 질문을 했다.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한 후에 孟杰明이 다시 화제로 돌아오려고 했다. 먼저 영어 담화표지 ‘anyway’라고 한 후에, 영어식 얼버무리기 ‘a~m’를 했다. 그리고 DVD대여 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을 한 얘기를 이어서 ‘然后’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을 계속 진행하였고, 다른 경험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然后’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就是’이다. 품사로서의 ‘就是’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하나는 부사이고, 하나는 접속사이다. 부사로 사용할 때 세 가지 용도로 쓰인다.²⁷⁾

- 1) 단독으로 쓰여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을 동의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就是，就是，有道理。
- 2) 강조
我劝了很久，他就是不去。
- 3) 범위를 정하고 예외를 배제한다.
我们家就是这三口人。
‘就是’를 접속사로 사용할 때 두 가지 용도가 있다.
 - 1) 가정하여 양보를 뜻하다. ‘비록’
就是遇到天大的困难，我们也要努力解决。
 - 2)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한다.
他们是双胞胎，就是家里人有时也分不清楚。

27) 张黎, 袁萍, 高一瑄(2017), 《汉语口语话语标记成分研究》, 北京: 北京语言大学.

접속사와 부사로서 외에 ‘就是’는 담화표지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비정상회담』에서 ‘就是’가 담화표지로서 주로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화제 연결 기능이고, 또 하나는 설명, 수정 등 얼버무리기 기능이다. 화제 연결 기능으로 사용되는 ‘就是’는 주로 문장의 선두에 있고, 얼버무리기 기능으로 사용되는 ‘就是’는 주로 문장의 중간에, 즉 연결성이 끊어진 아무데나 나타날 수 있다.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된 횟수 및 비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 담화표지 ‘就是’의 기능별 사용 횟수 및 비율

기능	횟수	비율
화제 연결	41	59.42%
얼버무리기	28	40.58%

<표-10>에서 나타나듯이 ‘就是’가 화제 연결 기능으로 사용한 횟수가 조금 더 많다. 이 번절에서 화제 연결 기능으로 ‘就是’의 사용 예시를 살펴본다. 토론할 때 담화의 연속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외국인은 중국어 실력의 차이로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할 때 발화의 연속성이 보장하기 힘들 때가 있다. 또한 생각하면서 발화할 때 사고의 도약이나 중단에 따라 앞뒤 발화를 연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앞뒤 문장 간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就是’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문[14]

(미얀마) OO : 回来了又开心得要命。<就是>我觉得一个人还没去之前, 就会有很多偏见, 所以去的还是好的。

예시문 14는 앞서 얘기한 팀워크 다지기 위한 단체 여행에 대해 직원들의 태도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내용이다. 먼저 가기 전에 싫었지만 돌아오면 아주 즐겁다는 결론을 한 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다. 즉 가기 전에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 OO는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 앞에 ‘就是’를 사용하여 원인과 앞 문장의 결론과 연결시켰다.

예시문[15]

(아르헨티나&스페인) 功必扬：很多普通人不太能理解这些人，<就是>社交不太正常的人。就像很多人，不能理解抑郁症病人，<就是>他们不能理解，为什么他们说不出他们心里的苦。

예시문 15에서 ‘就是’를 두 번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就是’는 앞 문장에 나타난 ‘这些人’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就是’는 앞에 나타난 문장 ‘不能理解抑郁症病人’ 전체에 대한 설명이다.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담화를 한 것이다. 의견 제시와 부가 설명 사이에 ‘就是’를 사용하여 화제를 연결하는 것을 실현했다.

3) 연결 유지

언어수정은 담화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다. 토론자가 담화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발화에 대해 필요에 의해 수시로 수정한다. 의견 전달의 정확도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발화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다. 특히 외국인 토론자들은 담화 시 유창성이나 연결성이 끊길 때 연결 유지를 위한 담

화표지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얼버무리기라고도 한다.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잘못 사용한 언어를 수정하기도 하고, 담화표지를 통해 시간을 벌어 언어를 다시 조직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미전달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²⁸⁾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사용한 연결 유지 담화표지를 실현순위로 정렬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 연결 유지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就是	28	28.57%
2	這個	15	15.31%
3	那個	14	14.29%
4	一個	11	11.22%
5	什麼	8	8.16%
6	你的	4	4.08%
7	呃	4	4.08%
8	我們	3	3.06%
9	a-m	2	2.04%
10	怎麼樣	2	2.04%
11	那些	1	1.02%
12	這些	1	1.02%
13	我們的	1	1.02%
14	干嘛	1	1.02%
15	那種	1	1.02%
16	什么的	1	1.02%
17	怎麼說呢	1	1.02%

<표-10>에서 나타나듯이 연결 유지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28) 史金生, 胡曉萍(2013), <‘就是’的話語標記功能及其語法化>, 《漢語學習》(04), pp.13-20.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就是’이고, 그 다음으로 ‘这个’, ‘那个’ 등도 많이 사용되었다.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의 토론담화에서 ‘就是’는 얼버무리기 기능으로 사용할 때 주로 끊긴 부분에 메꾸어 담화의 연결을 유지했다.

예시문[16]

(일본) 一之瀬 : <就是>因为你看, 有一些酒店, 餐厅什么的, 都要有...<就是>要规定要穿什么的.

예시문 16에서 담화표지로 ‘就是’는 두 번 사용되었다. 첫 번째 ‘就是’는 화제연결 기능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就是’는 얼버무리기 때 연결 유지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토론자 一之瀬가 호텔이나 식당 등에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장에 대한 규정’이라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就是’를 사용하고 명사형의 표현인 ‘복장에 대한 규정’을 포기하고, 문장구조를 다시 조직하여 서술어 형태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규정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발화를 연결했다.

예시문[17]

(미얀마) OO : 然后你已经进入了一家公司, 就得陪公司<就是>(…)一起<就是>(…)进步。我知道扬扬说的不舒服什么的, 那你进了公司, 有时候就是要做一些不舒服的事情。

예시문17에서는 ‘就是’는 세 번 나타났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담화표지로 사용된 경우이고, 세 번째 나타난 ‘就是’는 부사로 사용된 것이다. 토론자 OO는 회사에 입사한 후에 직원들은 회사와 일체화되어 함께 성장해나간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회사와’까지 발화한 후에 ‘함께 성장한다’라는 표

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就是’를 사용하여 시간을 벌면서 ‘一起’라는 어휘를 말했고, ‘就是’를 한 번 더 사용해 ‘进步’라는 어휘를 떠올라 표현했다. 이 발화에서 ‘就是’ 뒤에 인지할 수 있는 휴지가 있었고, 토론자가 발화를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就是’는 강조 역할을 하는 부사로 사용한 것이고 담화표지와 구별된다.

예시문[18]

(일본)一之瀬：如果①<就是>这是工作时间内，②<就是>一起跟同事聊工作的事情，我ok，发工资，我ok。可是③<就是>如果这是下班了以后，就接受不了了。<其实呢>大家可能知道，日本的团建比较多一点，因为他们下班了以后，很喜欢去④<就是>居酒屋喝酒嘛。<然后>⑤<就是>聊聊一些工作的事情，可是最近的日本人的年轻人，就不一样了。他们就不喜欢这些了。不参加的话，可能不能升级。工资也不太高。可是他们都不在乎，无所谓的。

예시문 18에서는 ‘就是’가 5번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 ②는 화제 연결 기능으로 문장의 서두에 사용한 것이고, 그 외 4번은 연결 유지 기능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토론자 一之瀬가 이 내용을 발화할 때 언어 수정이나 얼버무리기 등 현상이 없었다. 즉 이 발화에서 연결 유지 기능의 담화표지인 ‘就是’의 사용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就是’와 그 앞뒤의 다른 문장 성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발화했고 휴지나 반복이 없었다. 이는 토론자 一之瀬가 ‘就是’를 말버릇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一之瀬의 다른 발화에서도 ‘就是’의 많은 사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인 중에도 ‘就是’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연결유지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就是’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것은 ‘这个’, ‘那个’ 등이다. ‘这个’, ‘那个’는 원래 지시대명사로 사용되는 품사이다. 주로 명사의 앞에 사용되거나, 명사를 대체하여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된다. 담화표지로서는 주로 공백을 채우고, 연결을 유지하는 용도로 쓰인다.²⁹⁾

예시문[19]

(터키) 唐小强 : 小孩子哇哇哭, 在餐厅也好, 在飞机上也好, 任何公共, <那个>(...), 公共, 不是厕所, 公共, <呃>(...), <那个>(...)public place, 小孩子哭的时候, 他的爸爸妈妈比你们还更, 就是想让他安静, 知道吗?

예시문19에서는 토론자 唐小强이 ‘공공장소’라는 어휘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那个’를 담화표지로 사용하여 담화의 공백을 채우고, 발화의 연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那个’를 두 번 쓰고, 시간을 끄는 담화 표지인 ‘呃’까지 썼는데도 ‘공공장소’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결국 영어로 사용하여 담화를 이어갔다.

예시문[20]

(미얀마) OO : 我觉得你有男女不平等的问题。可是这不是这个题目, 所以我就说别的。我不同意你们这些西方国家的<这个>, <这个>(...) <这个>习惯。我喜欢亚洲式的亲子关系。

예시문20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토론자 OO는 서양국가의 ‘가족관’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어휘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담화표지 ‘这个’를 연속 3번 사용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단어 ‘习

29) 张黎, 袁萍, 高一瑄(2017), 전과 같은 논문.

慣’을 떠올라 담화를 이어갔다.

2. 태도 표현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이 태도 표현기능의 담화표지는 총 88종류를 총 307회로 사용했다. 외국인 토론자들이 사용한 태도 표현 기능의 담화표지를 그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다시 주장하기, 동의하기, 부정하기, 반박하기, 의문하기, 근거들기, 제지하기, 반응하기 등 8종류로 세분하였다.

표-12 : 태도 표현 담화표지 하위 기능별 사용 빈도

	주 장 하 기	동 의 하 기	부 정 하 기	반 박 하 기	의 문 제 기	근 거 들 기	제 지 하 기	반 응 하 기	총
횟수	137	62	10	21	37	29	9	2	307
비율 %	44.63%	20.20%	3.26%	6.84%	12.05%	9.45%	2.93%	0.65%	100.00%
종류	15	24	4	13	15	9	6	2	88
비율 %	17.05%	27.27%	4.55%	14.77%	17.05%	10.23%	6.82%	2.27%	100.00%

<표-12>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국인 토론자들은 태도 표현 층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담화표지의 기능은 주장하기(137회)이다. 그런데 담화표지의 종류수를 보면 가장 다양한 종류로 나

타난 기능은 동의하기(24개)이다. 외국인 토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의 표현할 때 비교적 단일한 담화표지를 반복하여 많은 횟수로 사용하였고, 동의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비교적 다양한 담화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이 사용한 태도 표현 층위의 담화표지를 기능별로 목록화하면 다음 <표-13>와 같다.

표-13 : 태도 표현의 하위 기능별 담화표지의 종류

	주장하기	동의하기	부정하기	반박하기	의문제기	근거들기	제지하기	반응하기
1	我觉得	对啊	不是那样的	我打你的脸	为什么呢	我举个例子	好了	我在听
2	我发现	对呀	不是	我反驳一下你	这个是什么	给你一个例子	你少来了	继续
3	我相信	对	不对	打你	这个怎么回事呢	比方说	你不要打断我	
4	我告诉你们	没毛病	没有	打他的脸	请问	像	ok啦	
5	我想说	ok		no	采访一下你	我有一个例子跟你说	你好了没	
6	我跟你讲	好		不接受	什么鬼	再说一个例子	冷静	
7	我想说的是	嗯		不能这么说	不然呢	我有一个很好的例子		
8	我想说的呢	当然了		我想反对的是	为什么	我跟你们说一个例子		
9	我跟你讲	你说的非常对		我不一样	你以为	比如说		
10	我跟你们说	yes		so what	what			
11	我想补充一点	必须的嘛		我来打脸	是吗			
12	我想跟你说	我同意		对不起, 我要反驳一下	知道为什么吗			
13	我想说的事情	你说的没毛病		让我来骂这两个	你们有没有考虑			
14	我先跟你说一个事情	说得好			你有没有听过			
15	我的意思就	必须的			这个对吗			

	是							
16		真的是						
17		没错						
18		我很赞同						
19		我认可						
20		没错						
21		是的						
22		是						
23		说的没毛病						
24		确实是						

1) 주장하기

주장하기는 토론 담화에 토론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토론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세우고 담화를 펼칠 때 다양한 담화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我觉得	114	83.21%
2	我跟你说	4	2.92%
3	我想说	3	2.19%
4	我告诉你们	2	1.46%
5	我想说的是	2	1.46%
6	我跟你讲	2	1.46%
7	我想跟你说	2	1.46%
8	我发现	1	0.73%

9	我相信	1	0.73%
10	我想说的呢	1	0.73%
11	我跟你们说	1	0.73%
12	我想补充一点	1	0.73%
13	我想说的事情	1	0.73%
14	我先跟你说	1	0.73%
15	我的意思就是	1	0.73%

<표-14>에서 나타나듯이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我觉得’이다. ‘我觉得’는 총 114회 사용하였고 전체 사용의 83.2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때 담화표지의 사용은 ‘我觉得’에 집중되어 있다. ‘我觉得’ 이외에 14개 기타 담화표지의 사용이 나타났는데 간혹적으로 사용되었다.

예시문[21]

(아르헨티나&스페인)功必扬: <我觉得>这个是不一样, 你在说你花了钱, 你有权利做你想做的任何事情, <我觉得>非常的不对.<为什么呢>? 因为我们这些公共场所, 应该有所谓的一些规则, <然后呢><比如说>在这个公共场所, 你去摸一个人, 你不可以, <对不对>? 因为你在干扰他. 你在说话, 你大声说话, 你大声哭, 你大声<什么的>, 这些东西会影响人家在吃饭的心情, 也在影响这个环境, <比如说>我跟他在聊天, 也在影响我的这整个过程, <然后><我觉得>这些都是侵犯个人的空间, 我们这些公共场所, 是很多个体形成一个群体, 所以你不能做你想做的事情, 因为有其他人在旁边. 所以<我觉得>, 如果你侵犯了我的空间, 我有权利去骂你和骂你

的孩子。谢谢。

예시문21는 토론자 功必扬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우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내용이다. 먼저 그는 ‘我觉得’를 사용하여 앞선 발화자의 발화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我觉得’를 다시 사용하여 그게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다음에 예시를 들어 설명을 전개하다가 ‘我觉得’를 사용하여 이들은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규명하며, 마지막으로 ‘我觉得’를 다시 사용하여 개인 공감을 침범하는 자에게 불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功必扬의 담화 과정에 ‘我觉得’를 4번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외국인 토론자가 주장하기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 한정적인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동의하기

토론 담화에서 자신의 주장과 같은 의견이 나오는 경우, 또는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토론자들은 동의 혹은 수긍을 표하게 된다. 이럴 때 동의하기 담화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동의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 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15>와 같다.

표-15 : 동의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对	26	47.27%
2	对啊	8	14.55%

3	没毛病	3	5.45%
4	对呀	2	3.64%
5	yes	2	3.64%
6	ok	1	1.82%
7	好	1	1.82%
8	嗯	1	1.82%
9	当然了	1	1.82%
10	你说的非常对	1	1.82%
11	必须的嘛	1	1.82%
12	我同意	1	1.82%
13	你说的没毛病	1	1.82%
14	说得好	1	1.82%
15	必须的	1	1.82%
16	真的是	1	1.82%
17	没错	1	1.82%
18	我很赞同	1	1.82%
19	我认可	1	1.82%

<표-15>에서 나타나듯이 동의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对’이다. ‘对’는 총 26회 사용하였다. ‘对’, ‘对啊’, ‘对呀’ 등 비슷한 담화표지를 합치면, 전체 사용의 65.46%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때 담화표지의 사용은 ‘对, 对啊, 对呀’에 집중되어 있다. ‘对, 对啊, 对呀’ 이외에 16개 기타 담화표지의 사용이 나타났는데 한 두 번 간혹적으로 사용되었다.

예시문[22]

(미얀마) OO : 对呀。那边比缅甸便宜多了。去日本的时候有几个人就说能不能不要去。因为他们就觉得日本...(생략)...

예시문22는 토론자 OO의 담화인데 그는 앞선 발화자의 말을 동의를 표한 다음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다.

동의하기 담화표지 목록에 주목해야 할 것은 3위인 ‘没毛病’이다. 이는 원래부터 있는 담화표지가 아니라 최근의 인터넷 신조어이다. 신조어 ‘没毛病’은 웃긴 사람, 사건, 사물 등 볼 때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그 사건, 그 사물이 ‘아주 문제가 많다’라고 풍자하는 말이다. 그러나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没毛病’를 글자 자체의 뜻인 ‘문제 없다’로 동의하기의 담화표지로 사용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언어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부정하기

부정하기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 자신의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토론 담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의 내세워 담화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부정하기 담화표지를 사용하게 된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부정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 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16>와 같다.

표-16 : 부정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不是	5	50.00%
2	不对	2	20.00%
3	没有	2	20.00%
4	不是那样的	1	10.00%

<표-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주로 ‘不是’, ‘不对’, ‘没有’ 등 직설적이고 단순한 부정사로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했다. 이 점도 앞으로 중국어 교육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반박하기

반박하기는 토론 담화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찬반 토론은 의견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설득할 수 있는지 목적 달성이 달려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에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반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토론 담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할 때 적절한 담화표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반박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 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17>와 같다.

표-17 : 반박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我打你的脸	6	28.57%
2	不能这样讲	2	9.52%
3	不接受	2	9.52%
4	不能这么说	2	9.52%
5	我反驳一下你	1	4.76%

6	打你	1	4.76%
7	打他的脸	1	4.76%
8	我想反对的是	1	4.76%
9	我不一样	1	4.76%
10	so what	1	4.76%
11	我来打脸	1	4.76%
12	对不起, 我要 反驳一下	1	4.76%
13	让我来骂这两个 个	1	4.76%

<표-17>에서 나타나듯이 반박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我打你的脸’이다. ‘我打你的脸’는 총 6회 사용하고 전체 사용의 28.57%를 차지하고 있다. ‘我打你的脸’는 인터넷 신조어 ‘打脸’에서 파생된 말이고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으로 토론 담화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이는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사용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V장에서 자세하게 진행한다.

1위를 제외한 나머지 반박하기 담화표지의 사용횟수는 거의 비슷하고 다 한두 번 정도 사용하였다.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不能这样讲’, ‘不接受’, ‘我反驳一下’ 등 반박하기 담화표지는 대개 직설적인 반대하는 표현이다. 심지어 ‘让我来骂这两个’와 같은 상대방을 혼내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이는 외국인 토론자들이 담화표지 사용에 존재하는 문제로 보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게 반박해야 한다. 이는 또한 중국어 교육 현장이나

교재 제작에 주의해야 할 문제점이다. 외국인 토론자 중에 ‘对不起，我要反驳一下’처럼 먼저 양해를 구하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기 좋은 다양한 담화표지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의문제기

토론 담화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다가 주장의 반론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문을 던지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문제기 담화표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 중에 토론자 다수나 지목한 특정 토론자에게 질문하는 의문제기 담화표지도 있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설문형 담화표지도 있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의문제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19>와 같다.

표-18 : 의문제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为什么呢	17	45.95%
2	为什么	7	18.92%
3	what	2	5.41%
4	这个是什么	1	2.70%
5	这个怎么回事呢	1	2.70%
6	请问	1	2.70%
7	采访一下你	1	2.70%

8	什么鬼	1	2.70%
9	不然呢	1	2.70%
10	你以为	1	2.70%
11	知道为什么吗	1	2.70%
12	你们有没有考虑	1	2.70%
13	你有没有听过	1	2.70%
14	这个对吗	1	2.70%
15	是吗	1	2.70%

<표-18>에서 나타나듯이 의문하기 담화표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为什么呢’와 ‘为什么’ 등 자문자답의 설문형 담화표지이다. ‘为什么呢’는 17회로 사용하였고 ‘为什么’는 7회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 자문자답 설문형의 담화표지로는 ‘这个是为什么’, ‘这个怎么回事呢’, ‘知道为什么吗’ 등이 사용되었다. 이는 토론자들은 자문자답의 설문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담화 방식이나 전략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시문[23]

(아르헨티나&스페인) 功必扬 : ...생략...再说一个例子, 在整个西语国家, 就出现了一个委内瑞拉服务这个词, <为什么呢>? 因为可能你们不太知道, 但是委内瑞拉有很多难民, 到各个西班牙语国家去打工, 变成了服务员。但是他们的服务特别好, 都带微笑, 特别讲礼貌, 又守时, 非常棒。...생략...

예시문 23은 토론자 功必扬이 서비스업계에 미소의 중요성을 베네수엘라인을 예시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는 스페인어 나라에서 ‘베네수엘라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겼다는 것을 소개한 후

에 ‘为什么呢’라고 하여 설문을 했다. 바로 스스로 그 답을 제시하였고 이 자문자답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예시를 생동하고 흥미롭게 청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는 설문 담화표지가 담화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고 토론자가 바로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고 설문 담화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 근거들기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에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토론자들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담화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比如说	15	65.22%
2	我给你说一个例子	1	4.35%
3	我举个例子	1	4.35%
4	给你一个例子	1	4.35%
5	像	1	4.35%
6	我有一个例子跟你说	1	4.35%
7	再说一个例子	1	4.35%
8	我有一个很好的例子	1	4.35%
9	我跟你们说一个例子	1	4.35%

<표-19>에서 나타나듯이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가

장 많이 사용된 것은 와 ‘比如说’이다. ‘比如说’는 총 15회 사용하였고 전체 사용의 65.22%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 담화표지의 사용은 ‘比如说’에 집중되어 있다. ‘比如说’ 이외에 6개 기타 담화표지의 사용이 나타났는데 모두 한 번만 사용되었다.

예시문[24]

(러시아) 萨沙 : 就<比如说>有一个老师教会了一百个学生, 然后这一百个学生里面又出来了一个老师。然后这个老师又教会了五千五百个学生, 然后, 然后他们就所有人的爱情都是千篇一律。所以我觉得爱情就不应该是千篇一律的。

예시문22는 토론자 萨沙가 연애 교육 프로그램의 폐단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는 ‘比如说’를 사용하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예시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근거를 제시할 때 대부분이 ‘比如说’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장하기 담화표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토론자들이 한정적인 담화표지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제로 보인다.

7) 제지하기

토론이 진행하다가 간혹 토론자들이 지나치게 흥분되어 남의 발화 순서를 빼앗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제지하기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진정시킨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제지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 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

-20>와 같다.

표-20 : 제지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冷靜	3	33.33%
2	ok啦	2	22.22%
3	好了	1	11.11%
4	你少來了	1	11.11%
5	你不要打斷我	1	11.11%
6	你好了沒	1	11.11%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제지하기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진정시키거나 자신의 발화 순서를 지켜낸다.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담화표지로는 ‘冷靜’, ‘ok啦’, ‘好了’ 등이 사용되었고, 상대방이 발언권을 뺏는 것을 제지하는 담화표지로는 ‘你不要打断我’가 사용되었다.

예시문[25]

(러시아) 萨沙：那你有没有想过，孩子不能一个人在家啊？

(남아공) 宁大人：他可以一个人在家，他有阿姨奶奶爷爷，有很多家人可以喂它吃饭。

(러시아) 萨沙：<冷靜>，<冷靜>，<冷靜>。

예시문25는 토론자가 흥분한 상황이었다. 이 발화가 나오기 전에 어린 아이가 식당에 나와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미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예시문25에서 萨沙가 질문을 한 후 토론자 宁大人은 아주 흥분해서 거의 소리 지르듯이 발언했다. 이 상황에서 토론자 萨沙가 제지하기 담

화표지 ‘冷静’을 세 번 사용하여 상대방을 진정시켰다. 그 후 토론 담화가 다시 이어졌다.

8) 반응하기

토론 담화가 진행하다가 화자가 청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반응 확인하기도 하고, 청자가 화자의 말을 듣고 있다고 청자에게 자신의 반응을 알려주기도 한다. 청자가 자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화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반응하기 담화표지를 사용하게 된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반응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21>와 같다.

표-21 : 반응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我在听	1	50%
1	繼續	1	50%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청자가 반응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사용한 것은 두 번 나타났다. 이는 발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담화를 전개하는 과정에 특정한 청자를 지목하여 반응 확인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상황에서, 청자가 반응하기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이를 대답한 것이다.

IV. 『비정상회담』 토론 담화 담화표지 사용 분석(下)

1. 참여 유도

토론 담화에서 상호 작용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토론 담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토론 담화에서의 상호작용은 주로 찬반 입장의 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 효과적이고 활성화된 토론을 형성하기 위해 발화자가 적극적으로 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에 사용하는 담화표지는 주로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및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흥미유발 및 반응 확인 두 가지 기능의 담화표지가 사용되는 횟수와 종류 수는 다음 <표-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2 : 참여 유도 담화표지 하위 기능별 사용 빈도

	흥미유발	반응확인	총
횟수	23	101	124
비율 %	18.55%	81.45%	1
종류 수	8	19	27
비율 %	29.63%	70.37%	1

<표-22>에서 보이는 것처럼 외국인 토론자들은 반응 확인 기능의 담화표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다. 19개 종류의 담화표지를 총 101번 사용한 것이다. 이에 비해 흥미 유발 기능의 담화표지를 8개를 23회 사용하였다. 이는 담화에 ‘对吗’, ‘对不

저’ 등 간단한 질문을 통해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담화표지가 비교적 쉬운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발화하는 중간에 청자 중에 자신의 의견을 동의하는 사람의 호응을 얻어서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 흥미 유발

『비정상회담 (非正式会谈)』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이 사용하는 흥미유발 기능의 담화표지는 주로 청자들의 관심이나 주의를 끄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欸’, ‘哎呀’, ‘哦’ 등 감탄사를 사용하여 생동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또한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大家听过吗’라고 하여 관심을 끄는 거나, 상황을 설정한 후 ‘你们想一想’라고 하여 청자의 사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나타난 흥미유발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순위를 기준으로 목록화하면 아래의 <표-23>와 같다.

표-23 : 흥미유발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欸	7	30.43%
2	你看	6	26.09%
3	哦	3	13.04%
4	你看看	3	13.04%
5	大家听过吗	1	4.35%
6	哎呀	1	4.35%
7	来	1	4.35%
8	你们想一想	1	4.35%

<표-23>에서 나타나는 흥미유발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횟수 1위는 ‘欸’인데 이 감탄사가 관심을 끌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용 횟수는 7로 통계하였지만 실제로 그 횟수가 의미가 없다. 예시를 통해서 ‘你看’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예시문[26]

(일본) 一之瀬 : Ok啦。Ok啦。我觉得并不是。因为...就是...<你看>, 哪里的菜单里面有微笑一个项目可以点? 没有啊。而且正常工作就好了。真的是。

예시문22에서 토론자 一之瀬가 발화 순서를 받아서 먼저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밝혔다. 그리고 ‘你看’라는 담화표지를 통해 청자의 관심을 끈 후에, 질문을 하나 던졌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 반응확인

반응확인은 토론 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발화자가 청자들의 반응을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반응확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이외에 반응확인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반응확인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순위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 반응확인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对吧	23	22.77%
2	对不对	20	19.80%
3	对吗	11	10.89%
4	知道吗	10	9.90%
5	你知道吗	9	8.91%
6	是不是	5	4.95%
7	明白我的意思吗	4	3.96%
8	ok	4	3.96%
9	明白吗	2	1.98%
10	你知道吧	2	1.98%
11	知道我的意思吗	2	1.98%
12	你们想想	2	1.98%
13	怎么了	1	0.99%
14	好不好	1	0.99%
15	是吗	1	0.99%
16	好吗	1	0.99%
17	你说	1	0.99%
18	是吧	1	0.99%
19	大家都知道吧	1	0.99%

<표-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응확인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对吧’, ‘对吗’, ‘对不对’ 등 간단한 질문형 담화표지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자신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형태의 담화표지도 나타나는데 ‘知道我的意思吗’, ‘明白我的意思吗’, ‘明白吗’, ‘你知不知道吧’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다소 예의가 없어 보인다. 이는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v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예시문을 통해 간단한 질문형 담화표지의 사용양상을 살펴본다.

예시문[27]

(미얀마) OO : 我想补充一点, 我们可能也不是喜欢团建的呢人, <对吧>? 可是开了公司以后, 公司有公司自己的计划, <对吧>? 然后你已经进入了一家公司, 就得陪公司就是一起就是进步。

예시문 23에서는 토론자 OO가 자신의 의견을 보충 설명하였다. 먼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우리도 팀워크를 위한 외식 같은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견 제시한 후에 ‘对吧’를 사용하여 바로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여 동의를 구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을 제시했는데 즉 회사의 입장으로 보면 나름 자신의 계획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을 말한 후에 또다시 ‘对吧’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여 지지를 구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핵심 주장을 내세웠다. 즉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 OO는 이와 같은 담화표지의 전략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예시문[28]

(태국&인도) 天乐 : 对。Oh my god my lovely 唐大哥。

欸欸欸欸欸欸欸！我的唐大哥，刚刚说的一点都没有毛病。因为在印度，我们也有这样的想法，我们印度的父母都希望自己的儿子孩子们跟他们一起住，一辈子也可以跟他们一起住。他们觉得是他们的荣幸。他们也可以给自己的孩子钱，这个一点都没问题。所以我觉得跟他们一起住，让他们开心，这样有什么问题？<对不对>？

예시문24와 같은 경우 토론자 天乐가 먼저 앞에서 발화한 사람의 의견을 동의를 표하고 자신의 근거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인도 부모님의 관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자신과 같은 진영의 주장을 더 강조하였다. 발화 끝에 ‘对不对’라는 확인형 질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찬성하는 청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对不对’ 담화표지의 사용과 동시에 호응을 얻고자 하는 손동작도 함께 사용하여 현장에서 자신의 진영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담화표지 사용 전략의 효능을 최대화하였다.

2. 순서 교대

순서는 토론 담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토론자들은 순서 교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동의나 반박을 표현하면서 토론을 전개한다. Sacks(1974)에 의하면 순서 교대는 순서가 형성하는 ‘추이적정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담화는 이 지점에서 순서 교대가 발생하며 전후 순서 간에 순서의 중복이나 침묵이 발생하기도 한다.³⁰⁾ 특히 토론 담화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토론자들은 자신의 발언권 확보가 더 중요시한다. 따라

30) Scaks, H.(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4), pp. 696-735

서 자신의 순서가 되면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순서 유지의 많은 전략을 사용한다. 또 다른 토론자가 발언하는 중에 급하게 반박하려고 끼어들어 다른 토론자의 순서를 빼앗기도 한다.

표-25 : 순서 교대 담화표지 하위 기능별 사용 빈도

	유지하기	끼어들기	총
횟수	8	22	30
비율 %	26.67%	73.33%	1
종류 수	6	13	19
비율 %	31.58%	68.42%	1

<표-25>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정상회담』의 토론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들은 자신의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화표지를 비해 다른 토론자가 말하는 중에 끼어드는 담화표지를 더 많은 종류, 더 많은 횟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비정상회담』 제안 토론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비정상회담』의 제안 토론은 일반적인 토론 대회나 대학교의 토론 세미나처럼 격식이 있는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다. 외국인 토론자들은 격식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의 발화 순서나 발화 시간에 대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인 토론자들은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친하기 때문에 말을 거침없이 할 때가 많다. 그래서 『비정상회담』의 제안 토론의 담화가 자유롭게 진행되고, 담화 중간에 순서 교대가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동시에 이런 까닭에 예의 바르지 않은 발화가 나오기도 한다.

1) 유지하기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화표지로는 ‘等一下’, ‘请听我讲’, ‘我先讲一下’ 등이 있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유지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 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26>와 같다.

표-26 : 유지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 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等一下	3	37.50%
2	先听--说话 好吗	1	12.50%
3	请听我讲	1	12.50%
4	那你先听我 讲完	1	12.50%
5	让我说完	1	12.50%
6	我先讲一下	1	12.50%

가장 많이 사용된 ‘等一下’는 끼어들려는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请听我讲’, ‘让我说完’ 등은 발화자가 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先听--说话好吗’인데 이는 제3자가 끼어들려는 토론자에게 발화 중인 토론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즉 제3자가 발화자의 발언 순서를 유지하는 담화표지이다.

예시문[29]

(이탈리아)阿雷 : 我们意大利, 这个话题呢, 太有话可说了。意大利的电影很厉害, 大家都知道。驰名天下。威尼斯电影节我们都有, 我们都有, 大家都知道吧。可是我们还是觉得

原著党更值得我们尊重。我告诉你们，意大利人上哪都会带上书。坐飞机的时候带上书，去旅游的时候也得带上书。

(남아공) 宁大人：那你怎么没带书呢？

(이탈리아) 阿雷：<等一下>，<让我说完>。意大利卫生间，有水龙头，有马桶，还有洗屁池，你懂什么叫洗屁池？那我待会告诉你。在卫生间里头还会放一书堆。一个书堆。给你们看看。这是我家的洗手间。干净啊。没问题。

예문22에서는 토론자 阿雷가 발화하는 중간에 다른 토론자인 宁大人이 끼어들어 질문을 하였다. 이에 토론자 阿雷가 ‘等一下’를 사용하여 宁大人的 끼어들기를 제지하고, ‘让我说完’를 사용하여 발화 순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및 태도를 표현했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순서 유지 기능으로 사용한 ‘等一下’ 3회는 모두 이처럼 ‘让我说完’, ‘我先讲一下’ 등 발화 순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담화표지와 함께 연속으로 쓰였다.

2) 끼어들기

끼어들기는 순서 빼앗기라고도 하는데 다른 토론자가 발화가 끝나기 전에 중국에 끼어들어 자신의 순서를 구성하려는 행위이다.

Stenstroem(1994)에 의하면 끼어들기는 대부분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1) 기존 발화자가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2) 기존 발화자의 발화내용이 청자에게 불필요할 때 3) 발화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해 당장 말하고 싶을 때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서 경쟁이 일어나고 담화표지는 끼어들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³¹⁾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끼어들기 기능의 담화표지를 실현순위의 기준으로 정렬하면 다음 <표-27>와 같다.

표-27 : 끼어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목록

실현순위	담화표지	사용 횟수	비율 %
1	但是	5	22.73%
2	那	4	18.18%
3	可是	2	9.09%
4	我要说一下	2	9.09%
5	我想说一点	1	4.55%
6	没有	1	4.55%
7	我来回答	1	4.55%
8	而且	1	4.55%
9	所以	1	4.55%
10	不是	1	4.55%
11	就是	1	4.55%
12	等一下	1	4.55%
13	我接着__的话	1	4.55%

<표-27>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토론자들이 순서를 빼앗기 위해 사용한 담화표지는 주로 ‘但是’, ‘可是’, ‘而且’, ‘那’, ‘所以’ 등 접속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사용한 것은 대립을 나타내는 접속사 ‘但是’이다. 예시문을 통해

31) Stenstroom, A. B.(1994), An Introduction to spoken interaction. London:Longman.

서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담화 순서를 빼앗는 과정을 살펴본다.

예시문[30]

(미국) 欧阳凯 : 对。跟洗白差不多。那它的意思就是, ok, 比方说我是一个一点都不环保的公司, 对吧? 但是我想假装我很环保。所以我会找一个很环保的一个代言人。他代我去说, 哎呀这个品牌非常好, 但我并没有做任何的改变。但是后来人都会觉得我是很环保。所以这个是太假太虚拟。而且也可能有危险。

(미국&이탈리아) 钟逸伦 : 我觉得这其实是完全另外一个 issue。

(미국) 欧阳凯 : 没有。这个是同一个 issue。

(미국&이탈리아) 钟逸伦 : 这个是这个博主的责任。我觉得每一个博主有一种责任, 接一个好的广告,

(미국) 欧阳凯 : <但是>...

(미국&이탈리아) 钟逸伦 : 如果你作为一个很环保的人, 我相信你欧阳凯不会帮这些公司。

(미국) 欧阳凯 : <但是>, 我不知道你作为一个博主有没有这个责任, 对吗。你一开始有接广告, 我不知道你的信息, ...(생략)...

예시문23에서 여러 번의 순서 교대가 발생하였다. 토론자 欧阳凯의 발화 중에 토론자 钟逸伦이 끼어들었다. 두 토론자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몇 차례 담화하다가 欧阳凯가 다시 담화 순서를 가져가려고 '但是'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토론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의 시도가 성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가 한 문장을 얘기한 후에 다시 한번 '但是'를 사용하여 순서를 빼앗았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서 펼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의 토론 담

화는 비교적 자유롭고 비형식적으로 진행된 특징이 있다. 또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경우가 많아 토론자들은 서로 반박하면서 순서를 빈번하게 교대되는 것도 많다. 이런 경우에 반박기능의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순서가 교대되기도 한다. 즉 반박하기와 끼어들기 두 가지 기능으로 겸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담화표지의 사용은 반박하기의 기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태도 표현 층위에서 다루어 분석하였다.



V.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사용 오류 및 특징

1.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사용 오류

토론 담화에서 담화표지의 사용은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고,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담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해주고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토론 담화에서 담화표지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을 일으키게 되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비정상회담 (非正式会谈)』의 토론 담화의 외국인 토론자는 고급 중국어 사용자들이다. 전국 범위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된 중국어 수준이 높은 인재들이다. 이들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가 흔하지 않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나타난 담화표지 사용의 오류를 형태적, 의미적, 담화적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형태적 오류는 담화표지 사용 시 나타난 문법적인 오류이고, 의미적 오류는 담화표지 앞뒤 의미의 연결에 있어서 잘못 된 것이다. 형태적이나 의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담화적 오류로 분류한다.

1) 형태적 오류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담화표지 사용의 형태적 오류는 주로 담화표지가 문장에 위치하는 자리에서 발생한다.

예시문[31]

(아르헨티나&스페인) 功必扬 : 就跟<我觉得>这个整个社会的取向, 也是有一定的关系。现在越来越多人就认为社交能力是最重要的一部分。但是我拿oo说的那些话, ...(생략)...

예시문27에서 주장하기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인 ‘我觉得’가 문장에 잘못된 위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위치는 문장의 서두에 있어야 하고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我觉得就跟这个整个社会的取向, 也是有一定的关系’가 된다.

예시문[32]

(미국) 欧阳凯 : 如果是娱乐, 那个娱乐圈的vlog, 那个无所谓。但如果是他要传达很多信息和知识, 而且有很多人去关注他, 这有很大的问题。给你一个例子。在我的行业里面有一个词, 叫GreenWashing, 大家听过吗? 就是洗绿, 跟那个洗白一样的意思。

예시문28에서는 토론자 欧阳凯가 근거들기 담화표지를 사용할 때 약간의 형태적인 오류를 범했다. ‘给你一个例子’에서 동사가 하나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르게 고치면 ‘给你举一个例子’나, ‘给你讲一个例子’, 혹은 ‘给你说一个例子’가 된다.

2) 의미적 오류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담화표지 사용의 의미적 오

류는 주로 접속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화제 연결 담화표지의 사용에 나타난다.

예시문[33]

(호주) 孟杰明: ...(생략)...不过看书的呢, 你必须依赖你自己的想象力, 才能跟着作家一起完成这个故事。所以看电影的人, 大家都能看。男女老少都可以看。但是看书的, 只有一些人才能看到底。<而且><因此>他们就是看这书面上的最原汁原味的内容, 而且从此是跟着作家, 完成这个故事。因此我就觉得看书的还是更高级一点点。

예시문 29에서 토론자 孟杰明은 소설 원작을 보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고급스럽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但是看书的, 只有一些人才能看到底’와 그 다음 문장 ‘<而且><因此>他们就是看这书面上的最原汁原味的内容’ 사이에 ‘而且’, ‘因此’ 두 개의 담화표지를 사용하였다. ‘而且’, ‘因此’는 접속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앞뒤 내용에 부연이나 인과 관계가 없어서 담화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두 담화표지의 사용으로 인해 청자가 의미적으로 앞뒤 문장 간에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발화에서 이 두 담화표지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3) 화행적 오류

화행적 오류는 명백한 오류라기보다는 실제 발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했던 것을 가리킨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담화표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등 현상이 있다.

예시문[34]

(터키) 唐小强 : <我觉得>带员工出去旅行, <就是><我觉得>挺好的。<但是呢>, <我觉得>在中国有一些团建是有一点奇葩。比如说周末的时候, 穿<那个>军队的<那个>衣服, <然后>就是去上山, <然后>就跑步啊, 做运动啊, 感受野生的生活。但是我觉得周一到周五那么辛苦那么累, 还周末的时候, 又更辛苦。<我觉得>够无聊, 就这种团建还不如不搞。

예시문 30에서 발화시작에서 한 문장의 앞뒤에 ‘我觉得’가 두 번 사용하였다. 이 중에 두 번째로 사용한 것은 필요 이상의 사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我觉得’와 ‘就是’라는 화제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와 연결하여 사용한 것도 화행적 오류로 간주한다. 이어서 예를 들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는데 ‘我觉得’를 2번 더 사용하였다. 그리고 ‘군복’이라는 단어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묘사하는 표현에서 ‘那个’를 두 번 사용하였고, 팀워크 훈련의 내용을 묘사할 때 ‘然后’를 두 번 사용하였다. 이 발화에서 전체적으로 담화표지를 필요 이상 많이 사용한 오류로 분석된다.

예시문[35]

(일본) 一之瀬 : 如果**就是**这是工作时间内**就是**一起跟同事聊工作的事情, 我ok, 发工资, 我ok。可是**就是**如果这是下班了以后, 就接受不了了。其实呢大家可能知道, 日本的团建比较多一点, 因为他们下班了以后, 很喜欢去**就是**居酒屋喝酒嘛。然后**就是**聊聊一些工作的事情, ...(생략)...

예시문31도 담화표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행적 오류를 범한 예시이다. 예시문 30의 오류는 간헐적인 것이라면 예시문 31의 오류는 습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문 30의 발화자가 휴지, 수정 등이 있는 것과 달리 예시문 31의 발화자가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발화를 하였다. 따라서 예시문 31처럼 담화표지 ‘就是’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이 토론자의 개인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언어 학습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한 수정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잘못된 말버릇으로 경직화된 것이다.

2. 외국인 토론자 담화표지 사용 특징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를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 외국인 토론자들이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서 여러 특징이 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3가지로 나타난다.

1) 한정적인 담화표지 사용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담화표지의 종류가 한정적인 것은 첫 번째 특징이다. 토론 담화를 분석해 본 결과 외국인 토론자가 총 176종류의 담화표지를 사용했다. 종류의 수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장하기,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는 한 가지의 담화표지에 몰려 있었다.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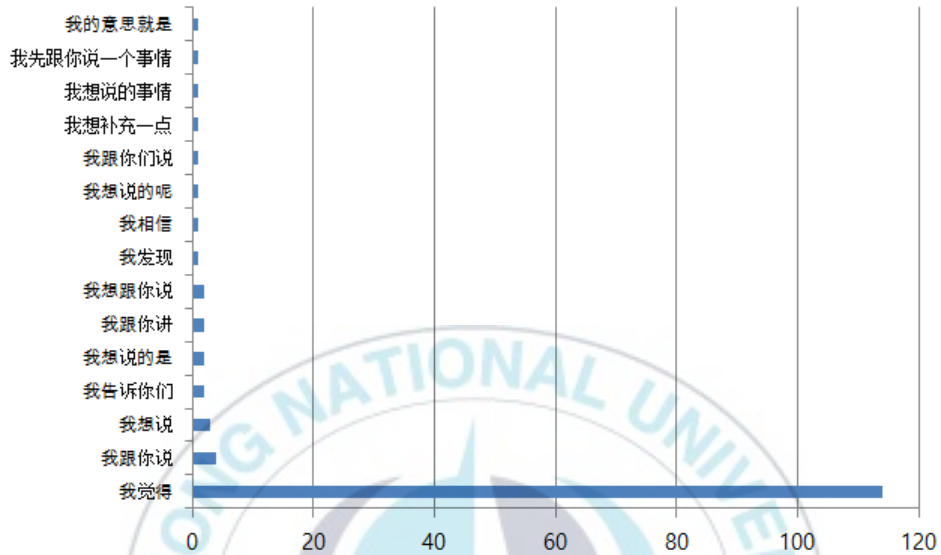


그림-2 :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횟수

<그림2> 및 <그림3>은 주장하기와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의 사용 횟수 비교도형이다.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중에 ‘我觉得’에 집중되어 있고, ‘我觉得’는 전체 사용의 83.21%를 차지하고 있다.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중은 ‘比方说’와 ‘比如说’에 몰려 있다. 외국인 토론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 대부분이 ‘我觉得’를 사용하여 발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근거를 들 때는 대부분이 ‘比方说’나 ‘比如说’를 사용하여 근거를 제시하였다.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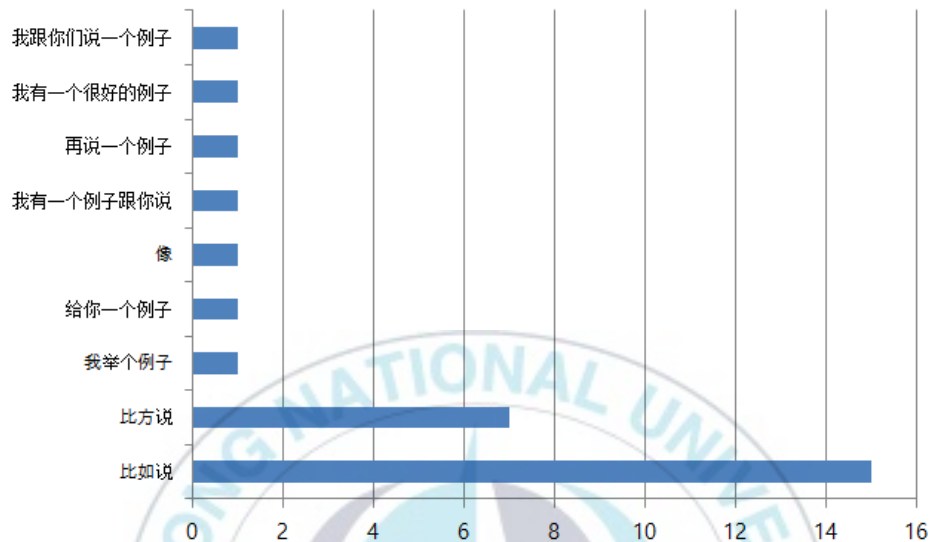


그림-3 : 근거들기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 횟수

예시문[36]

(아르헨티나&스페인) 功必扬 : 就跟<我觉得>这个整个社会的取向, 也是有一定的关系。现在越来越多人就认为社交能力是最重要的一部分。但是我拿oo说的那些话, 而且是杨迪跟我们补充oo的那个态度, <我觉得>是真的有必要这样子吗? 你说了那些他对员工说的那些话, <我觉得>跟他那个员工真正的工作能力是不挂钩的。知道吗。<我觉得>这个东西不是一样的。如果你骂得更爽, 这个工作效率会更高吗? 不一定。<我觉得>这是动力, 有可能, 但是也有可能不是啊。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대부분 토론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我觉得’라는 담화표를 사용했다. 심지어 예시문 32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명의 토론자의 발화 중에 ‘我觉得’를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담화표지 종류를 한정적

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특징이고 앞으로 중국어 교육 현장이나 교재 제작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예의에 어긋나는 담화표지 사용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의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의에 어긋나는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打臉’이란 것이다. 이는 원래 남의 체면을 깎는다는 뜻인데 요즘 인터넷에서 부정이나 반박의 담화표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들도 이를 자주 사용하였다.

예시문[37]

(태국&인도) 天乐 : 小明, <我打你的脸>。为什么? 因为我觉得啊, 学习知识, 想象力不是第一位的。我觉得准确才是第一位的。

예시문33에서 토론자 天乐가 앞선 발화자의 의견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我打你的脸’라고 하였다.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발화이고 올바른 담화 행위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국인 토론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상회담(非正式会谈)』에서 토론의 분위기를 돕기 위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문구를 쓰인 소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打臉’라는 문구를 쓰인 것이 있다. 외국인 토론자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습득하여 토론 담화에서 이를 자주 쓰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올바르지 않은 토론 담화 행위는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4 : 『비정상회담』에서 사용하는 찬반 소품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打脸’처럼 예의에 어긋나는 담화표지 외에 약간 오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담화표지도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주장하기, 반응 확인, 반박하기 등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할 때 자칫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담화표지가 사용되었다.

예시문[38]

(이탈리아) 阿雷 : 我们意大利, 这个话题呢, 太有话可说了。意大利的电影很厉害, 大家都知道。驰名天下。威尼斯电影节我们都有, 大家都知道吧。可是我们还是觉得原著党更值得我们尊重。<我告诉你们>, 意大利人上哪都会带上书。坐飞机的时候带上书, 去旅游的时候也得带上书。

예시문[39]

(터키) 唐小强 : 他们心里很难受, 为什么呢? 第一, 世

界上没有任何的父母，很喜欢我的孩子哭，我很开心。没有这种长辈。因为他们的孩子越哭，他们的心里越疼。因为他们解决不了，他们的孩子的问题，<知道吗>？第二，他们很不舒服，因为他们也就是担心打扰到他们身边的陌生人，别人，所以你们要带点同理心，去了解他们的心情，<知道我的意思吗>？

예시문34에서 토론자 阿雷가 이탈리아 사람들의 독서 습관을 소개할 때 주장하기 기능의 담화표지로 ‘我告诉你们’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타이르거나 가르치는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토론자 阿雷는 베이징 사투리로 말하기 때문에 발화에 느끼지는 오만함이 한층 더 짙다.

예시문 35에서는 토론자 唐小强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우는 것은 부모님도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발화에서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자의 호응을 받기 위해 반응확인 기능의 담화표지를 두 번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知道吗’와 ‘知道我的意思吗’ 이 두 질문은 듣는 사람이 그리 기분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드럽지 않고 아주 강경하게 느껴지는 담화표지의 사용은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외국인 대상으로 중국어를 교육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체면 손상하지 않게 발화하는 언어 표현이나 전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3) 영어 담화표지 사용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의 세 번째 특징은 영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의 외국인 토론자 중에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있고 영어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담화에 가끔 영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28 : 영어 담화표지 사용양상

실현 순위	담화표지의 기능	영어 담화표지	사용 횟수
1	반응확인/화제연결	ok	6
2	반박하기	no	6
3	연결유지	a-m(암)	2
4	동의하기	yes	2
5	의문제기	what	2
6	화제연결	anyway	1
7	반박하기	so what	1
8	제지하기	ok啦	1
			계: 21

<표-28>를 살펴보면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영어로 된 담화표지가 8종류를 총 21회로 사용하였다. 특히 ‘ok’, ‘no’ 등 짧은 음절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예시문[40]

(러시아) 萨沙 : <ok>, 那你先听我讲完。好。是的, 但是不一样。如果餐厅有明文规定, 说孩子不可以进, 婴儿不可以进, <ok>, 你可以骂我。是我错了。但是没有, 这是第一。

예시문[41]

(미국) 欧阳凯 : 你当时毕业之后, 你已经有小的翅膀, 就可以飞起来。对吧? 而且我觉得很多中国的年轻人也会有这种很想独立的这种感觉。他们也想脱离父母的这个压力和控制。他想独立和自由。但是如果他钱不够, <ok>, 比如说我觉得在中国, 如果你在一个一线城市的话, 如果你挣得大概八千块钱以内, 那我觉得你可以跟父母一起住, 因为我觉得压力确实很大。

예시문[42]

(미얀마) OO : <no>, <no>, <no>, 不接受, 不接受。

예시문 36와 예시문 37에서 토론자들은 화제 연결 기능으로 'ok'를 사용하였다. 예시문 35의 발언자는 영어 사용자가 아니고, 예시문 37의 발언자는 영어 사용자이다. 그리고 예시문 38에서 토론자가 no를 세 번 연속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영어 담화표지의 사용은 외국인 토론자의 발화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국인 진행자의 발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담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면서 중국어는 영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언어의 병존은 특징으로 간주하고 오류로 보지 않는다.

VI. 결론

본 연구는 『비정상회담 (非正式会谈)』 시즌 6, 총 8회에 ‘제안 토론’의 내용을 전사하여, 이 자료를 대상으로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고급 중국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담화표지를 수집하고 그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토론 담화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토론자가 사용하는 담화표지를 토론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능별로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담화표지 기능을 크게 화제 결속, 태도 표현, 참여 유도, 순서 교대 4개의 층위로 분류하였고 각 층위 아래 다시 세분하였다. 4 가지 층위 중에 외국인 토론자가 태도 표현의 담화표지를 가장 많은 종류 수, 많은 횟수로 사용하였다. 화제 결속은 다시 담화 시작, 화제 연결, 연결유지 3개로 세분하였는데 이 중에 담화 시작 기능의 담화표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화제 연결 및 연결유지 기능의 담화표지는 비교적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외국인 토론자가 화제의 연속성 및 응집성을 유지하는 데에 담화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도 표현은 다시 주장하기, 동의하기, 부정하기, 반박하기, 의문제기, 근거들기, 제지하기 그리고 반응하기 등 8개로 세분하였다. 이 중에 주장하기가 137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주장하기 기능 담화표지 137회 사용 중에 ‘我觉得’의 사용 횟수는 114회로 83.21%를 차지했다. 주장하기 뿐만 아니라 동의하기, 의문하기, 근거들기 등 기능의 담화표지 사용에도 이처럼 한정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주장을 요약하기, 보충 설명하기, 마무리하기 등 기능의 담화표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들은 외국인 토론자가 태도 표현 층위의 담화표지를 종류의 면

에서도, 기능의 면에서도 모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참여 유도는 다시 흥미 유발, 반응 확인으로 세분화였다. 흥미 유발과 반응 확인 기능의 담화표지는 비교적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외국인 토론자가 자신의 담화를 흥미롭게 전개하고 담화 중에 수시로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반응 확인 기능에 사용되는 ‘知道我的意思吗’, ‘明白我的意思吗’, ‘明白吗’, ‘你知道吧’ 등 담화표지는 다시 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더 적절한 표현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순서 교대는 다시 유지하기 및 끼어들기로 세분화였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 찬반 입장 간의 경쟁이 심해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담화 과정에 발화 순서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다. 외국인 토론자들은 자신의 순서를 유지하거나 급할 때 상대방의 담화에 끼어들거나 순서를 빼앗기에 적절하게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를 기능별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의 오류 및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담화표지 사용의 오류는 주로 형태적 오류, 의미적 오류, 담화적 오류 등 3가지가 있다. 형태적 오류는 주로 담화표지가 문장에 출현하는 위치를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의미적 오류는 주로 접속사 사용할 때 선후 문장 간의 관계와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오류가 한 두 번만 나타났고 보편적인 오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담화적 오류는 명백한 오류라기보다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외국인 토론자의 담화에서 주로 담화표지의 중복사용, 연속사용, 과도한 사용, 그리고 말버릇처럼 습관적 사용 등 현상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의 특징으로는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 담화표지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특징이다. 특

히 태도 표현 층위의 주장하기, 근거들기 등 기능에 거의 한 두 가지의 담화표지를 집중해서 사용하였다. 또한 담화시작, 주장 요약하기, 부연 설명하기, 마무리하기 등 기능 담화표지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토론자가 학습한 담화표지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중국어 담화 교육에 다양한 기능의 다양한 담화표지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예의에 어긋나는 담화표지의 사용이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가 경쟁이 치열한 특징이다. 이러한 치열한 토론 경쟁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순서 교대 등 경우에 예의 바르지 않은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주장하기, 반응 확인 등 기능의 담화표지 중에 ‘我告诉你们’, ‘知道吗’, ‘知道我的意思吗’ 등을 사용한다. 외국인 토론자가 이와 같은 담화표지들이 상대방을 약간 존중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사용했을 것이다. 중국의 문화에 상대방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발화하는 표현이나 전략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것은 시급해 보인다.

세 번째 특징은 영어 담화표지의 사용이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영어로 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화제 연결, 반응확인, 반박하기, 연결유지 등 다양한 기능의 영어 담화표지가 사용되었다. 이는 외국인 토론자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도 요즘 발견되는 언어 현상이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늘었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를 병용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언어 다원화 현상은 본 연구에서 오류로 보지 않고 『비정상회담』 토론 담화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영어 담화표지의 사용은 화자와 청자 간에 이해 장애가 전혀 되지 않고 모든 토론 참여자가 영어 담화표지의 의미와 기

능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한 작업을 통해 담화표지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토론 기능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담화표지를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토론 상황에서 적절한 담화표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전략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문화를 고려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도 중국어 교육에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비정상회담』의 제안 토론에 중국인이 거의 참여하지 않아 외국인 토론자의 담화표지 사용양상을 중국인과 비교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을 남겼다. 또한 『비정상회담』의 토론 담화는 토론자 11명에 제한되어 있어서 보다 더 넓은 보편성을 추구하려면 추후 더 많은 토론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가 담화표지 습득의 양상을 엿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또한 외국인 토론자가 담화표지 사용의 오류 및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토론 담화표지 교육의 기초자료로 적용한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 강소영(2008), "어순도치구문의 담화 기능 분석", 『한국어 의미학』 26권, pp.1-20.
- 구현정·이성하(2001), "조건 표지에서 문장종결 표지로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8권 1호, pp.1-19.
- 구현정(2005), "담화 맥락에서의 조건 표지-조건에서 공손으로", 『담화와 인지』 12권.
- _____(2005), "말뭉치 바탕 구어 연구", 『언어과학연구』 32권 2호, pp.1-22.
- 김규현(2000), "담화와 문법: 대화분석적 시각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7권1호, pp.155-184.
- _____(2009), "구어 자료의 전사 관행-담화 및 대화분석의 예를 중심으로", 『언어 사실과 관점』 23권, pp.77-102.
- 김명희(2005), "국어 의문사의 담화표지화", 『담화와 인지』 12권 2호, pp.41-63.
- 김선화(2008), "토론대화에 나타난 메타화행의 특징", 『국제어문』 43권, pp.389-417.
- 김일웅(1989), "담화의 짜임과 그 전개", 『인문논총』 34권, pp.23-59.
- 김종수(2009), "간접 화행으로서의 수사의문문", 『독일어문학』 44권, pp.287-306.
- 김태엽(2000), "국어 담화표지의 유형과 담화표지되기", 『우리말글』 19권, pp.1-23.
- _____(2002), "국어 문법화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24권, pp.1-22.
- _____(2002), "담화표지 되기와 문법화", 『우리말글』 26권.
- 김해연(1997), "기능문법과 담화 분석", 『인문학연구』 26권, pp.17-39.
- 김향화(2002),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4), "담화표지의 식별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29권,

pp.9-14.

- 김혜영(2009), "한국어의 수정 화행과 수정 유도 표현 -TV 토론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6, pp.139-159.
- 문미선(2002), "문법화와 의미론적 재분석", 『인문논총』 10권, pp.21-40.
- 박애양(2009), "담화표지 '那'의 특징 연구-중국드라마 '梦里花开'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50호, pp.59-80.
- 박연정(2009), "현대중국어 어기조사 '呢'의 어법기능 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박찬욱(2011), "현대중국어 '然後'의 담화기능 소고-전화참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교문화연구』 22권, pp.329-354.
- 백용학(1996), "화용표지에 관한 연구", 『동아영어영문학』 12권, pp.11-37.
- 서혁(1995), "담화의 기능 및 유형", 『국어교육학연구』 5권 1호, pp.121-140.
- 서상옥(1998), "담화표지 well의 개념구조",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논문집』 26권 1호, pp.59-92.
- 서태용(1999),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东岳语文学会』 35권, pp.21-50.
- 송경안(2003), "청자-화자간 역동과 문법화", 『독일언어문학』 22호, pp.53-75.
- 송석만(2004), "적절성이론에 의한 담화 연결어 분석", 『영미어문학연구』 20권 2호, pp.71-88.
- 신미섭(2008), "도상성과 중국어 어순", 『동아인문학』 13권, pp.369-392.
- 신현숙(1997), "21세기 담화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 의미학』 1권, pp.59-84.
- 신형욱(2003), "메타언어, 메타화행 그리고 메타의사소통", 『텍스트언어학』 15권, pp.483-506.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말』 17권, pp.21-38.
- _____(2009),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표지 위계화 방안", 『한국어교육』 20권 3호, pp.135-159.
- 양경미(2004), "한·중 중간언어 속의 '还有'의 기능연구-일기체 작문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9호, pp.223-250.

- 양명희(1994), "국어 대용어의 특성과 기능", 『국어학』 24권, pp.259-289.
- 오승신(1995), "국어의 간투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권 1호, pp.53-86.
- 이경희(2008), "담화연결어의 의미와 기능", 『한국슬라브어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2호, pp.173-201.
- 이봉선(1994), "텍스트언어학을 통한 담화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권, pp.339-352.
- 이성하(2007), "문법화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1권, pp.35-50.
- 이현호(1998), "우리말 방송 대화의 담화·화용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담화와 인지』 5권 2호, pp.123-157.
- 임근석(2008), "문법적 언어와 문법화의 관계", 『국어학』 51호, pp.115-147.
- 장동식(1991), "담화분석의 필요성과 담화조직", 『순천대학교 어학연구』 3권, pp.135-151.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 연구』, 4권, pp.113-145.
- 황병순(2010), "담화 표지 연구에 드러난 몇 가지 의문", 『배달말』 47권, pp.115-135.

[중문]

- 薛 荣(2004), 〈论交际能力与交际策略〉, 《江苏工业学院学报》第5期.
- 陈凤然(2006), 〈交际策略运用中的认知因素〉, 《燕山大学学报》第7期.
- 崔 蕊(2008), 〈“其实”的主观性和主观化〉, 《语言科学》第7期.
- 董秀芳(2002), 〈论句法结构的词汇化〉, 《语言研究》第48期.
- _____(2007), 〈汉语书面语中的话语标记“只见”〉, 《南开语言学刊》第10期.
- 方 梅(2000), 〈自然口语中弱化连词的话语标记功能〉, 《中国语文》第12期
- _____(2002), 〈指示词“这”和“那”在北京话中语法化〉, 《中国语文》总第

289期.

- 冯光武(2005), 〈语用标记语和语义/语用界面〉,《外语学刊》第7期.
- 高原(2003), 〈谈关联词的意义问题〉,《外语学刊》总第112期.
- 高增霞(2004), 〈自然口语中的话语标记“完了”〉,《语文研究》总第93期.
- (2004), 〈自然口语中的话语标记“回头”〉,《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学报》第1期.
- 郭凤岚(2009), 〈北京话话语标记“这个”、“那个”的社会语言学分析〉,《中国语文》总第332期.
- 黄大网(2001), 〈话语标记研究综述〉,《福建外语》总第67期.
- 金立鑫(1996), 〈关于疑问句中的“呢”〉,《语言教学与研究》第4期.
- (2007), 〈疑问句句末语气助词“呢”探析〉,《重庆文理学院学报》总第26期.
- 梁惠梅(2007), 〈话语标记语及其语篇联结功能〉,《广西大学学报》第12期.
- 梁敬美(2002), 〈“这”、“那”的语用与话语功能研究〉, 中国社会科学院博士学位论文
- 李晋霞(2005), 〈论话题标记“如果说”〉,《汉语学习》第1期.
- 李楠(2006), 〈话语标记语及其语篇连贯功能〉,《邢台学院学报》总第21期.
- 李晟宇(2004), 〈假设、推测和征询“VPo呢?”〉,《内蒙古师范大学学报》总第33期.
- 刘丽艳(2005), 〈口语交际中的话语标记〉,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 (2006), 〈话语标记语“你知道”〉,《中国语文》总第314期.
- 刘焱(2007), 〈话语标记语“对了”〉,《云南师范大学学报》第5期.
- (2008), 〈话语标记语“怎么说呢”〉,《中语中文学》总第41期.
- 李雪(2008), 〈简论“词汇化”〉,《教学交流》总第15期.
- 李勇忠(2003), 〈信息短路下的话语标记〉,《外语学刊》第3期.
- 李宗江(2008), 〈表达负面评价的语用标记“问题是”〉,《中国语文》总第326期.
- (2010), 〈关于话语标记来源研究的两点看法 - 从“我说”类话语标记的来源说起〉,《世界汉语教学》总第24期.
- 卢桂冬(2008), 〈话语标记语的认知语用研究〉,《台州学院学报》总第30期.
- 卢榆梅(2007), 〈论关联推理中话语标记语的语用功能〉,《佛山科学技术学

- 院学报》总第25期.
- 马丽薇(2007), 〈话语标记语的顺应理论阐释〉,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 米海燕(2008), 〈话语标记语“然后”及其英译“then”的语用功能探析〉, 《河池学院学报》总第28期.
- 莫爱屏(2004), 〈话语标记语的关联认知研究〉, 《语言与翻译》总第79期.
- 彭建武(2004), 〈固定用语的语用特点及其交际功能〉, 《山东科技大学学报》第6期.
- 朴珍玉(2006), 〈“然后”一词的多角度分析〉,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 强星娜(2007), 〈“他问”与“自问”-从普通话“嘛”和“呢”说起〉, 《语言科学》总第30期.
- (2008), 〈知情状态与直陈语气词“嘛”〉, 《世界汉语教学》总第84期.
- 冉明志(2008), 〈话语标记语的元语用功能探析〉, 《广西民族大学学报》第4期.
- 盛银花(2007), 〈“还有”的连接功能及其词汇化〉, 《语言研究》总第27期.
- 沈家煊(2004), 〈说“不过”〉, 《清华大学学报》总第19期.
- 申 莉(2009), 〈从认知角度看语气词“呢”的功能及用法〉, 《语文研究》总第110期.
- 王道英(2004), 〈“这”“那”的情景指示〉, 《重庆大学学报》第10期.
- 王寒娜(2006), 〈话语标记研究综述〉, 《绥化学院学报》总第26期.
- 王 霞(2003), 〈转折连词“不过”的来源及语法化过程〉, 《河北师范大学学报》总第26期.
- 王 扬(2005), 〈话语标记的认知语用诠释〉, 《天津外国语学院学报》第12期.
- 王正元(2006), 〈话语标记语意义的语用分析〉, 《外语学刊》总第129期.
- (2006), 〈话语标记语意义的语用分析〉, 《外语学刊》总第129期.
- 韦晓萍(2006), 〈话语标记语的认知语用分析〉, 《河北理工大学学报》第6期.
- 徐 飞(2008), 〈关联理论和话语标记语You Know的语用功能〉, 《湖州师范学院学报》总第30期.
- 徐志红(2003), 〈话说“就是”和“就是说”〉, 《北京教育学院学报》总第17期.
- 许家金(2008), 〈汉语自然会话中话语标记“那(个)”的功能分析〉, 《语言科学》

第7期.

——(2009), 〈话语标记的现场即席观〉,《外语学刊》总第147期.

徐默凡(2001), 〈“这”、“那”研究述评〉,《汉语学习》第5期.

颜红菊(2006), 〈话语标记的主观性和语法化〉,《湖南科技大学学报》第9期.

闫 涛(2007), 〈论认知关联性对话语标记语的解释力〉,《学术交流》总第163期.

殷树林(2009), 〈话语标记“这个”、“那个”的语法化和使用的影响因素〉,《外语学刊》总第149期.

阴 瑛(2008), 〈影响话语标记语使用的因素研究〉,《读与写杂志》第5期.

于海飞(2006), 〈话轮转换中的话语标记研究〉, 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

曹秀玲(2000), 〈汉语“这/那”不对称性的语篇考察〉,《汉语学习》第4期.

张聪燕(2008), 〈话语标记语“你知道吗”〉,《哈尔滨学院学报》总第29期.

张小峰(2003), 〈现代汉语语气词“吧”“呢”“啊”的话语功能研究〉, 上海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张谊生(2002), 〈“就是”的篇章衔接功能及其语法化历程〉,《世界汉语教学》总第61期.

郑国平(2006), 〈语用预设及其交际功能〉,《安徽水利水电职业技术学院学报》第6期.

朱丽敬(2009), 〈话语标记语的语用学研究综述〉,《安徽文学》第11期.

朱 铭(2005), 〈关联推理中的话语标记语的语用研究〉,《安徽工业大学学报》总第22期.

周国柱(2006), 〈口语交际策略及其语用学探析〉,《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总第20期.

[영문]

Blakemore(1992), 〈Understanding utterances〉, Oxford : Blackwell.

Blakemore(2002),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ser(1990),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s〉, Journal of

Pragmatics Vol.14.

_____(1999), 〈What are discourse marks〉, Journal of Pragmatics Vol. 31.

Schiffrin(1987), 〈Discourse Ma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Zwicky(1985), 〈Clitics and Particles〉, Language Vol. 6.



**A Study on the Use of Talk Signs by Foreign Advanced
Chinese Users
—focus on the discussion and dialogue of “Informal Talks” of
Hubei TV Station—**

WANG XIYING

The Graduate School in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usage of discussion signs used by advanced Chinese users in “Informal Talks”. Since talk sign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ability of discussion, we hope to master the usage of talk signs by advanced Chinese users and provide clues for talk sign education.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is the discussion and dialogue between Chinese hosts and foreign performers who speak advanced Chinese in the “Informal Talks” program of Hubei TV Station.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choosing the discussion of whether or not to approve the “Informal Talks” as the research object. First, it is possible to observe the free and natural discussion and dialogue on a given topic; Second, it is possible to observe the Chinese discussion and dialogue of senior Chinese speakers of different nationalities. In the “Informal Talks” broadcast by Hubei TV Station, before the Covid-19 incident, the eighth episode of the last season, the part about whether to agree or not in the “Discussion on Proposals”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Firstly, the research method translates the image data into

characters through data transfer. Then, the replicated data are analyzed quantitatively and statistically, so as to master the distribution of session marks in the discussion session. And qualitatively observe the usage of session marks, and analyze the specific usage of session marks by function. Finally, the errors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 discussants in using conversation markers are discussed.

Conversational markers in the discussion conversa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levels: topic connection, attitude expression, participation induction and sequence alternation, and then functional subdivision analysis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topic connection, there are most conversation signs using the function of “topic connection”. There are also conversation signs such as “topic introduction”, “topic change” and “topic end” which are commonly used in discussion conversations. “then (32.45%)” and “That is (21.81%)” are commonly used conversational markers in the function of “topic connection”. At the level of attitude expression, the most conversational markers are using the function of “assertion”. Among the talking signs that assertion function, “I think” accounts for 83.21%, “right” accounts for 47.27%, “why” accounts for 45.95%, and “examples” accounts for 65.22%. I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duction, the dialogue symbols which use the function of “confirming reaction” are the most. The conversation signs for confirming the reaction function are mainly simple questions such as “yes”, “Is it right”, “do you know”, etc. In the order alternation layer, the conversation signs using the “insert” function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Because of the intense discussion and conversation in the “Informal Talks”, the order of the discussants is often alternated, which is mainly marked by conjunctions.

There are three types of errors made by foreign discussants:

formal errors, semantic errors, and conversational errors. Formal errors appear in the position of the article. When conjunctions use conversational markers, there will be semantic errors, and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preceding and following sentences will be grasped incorrectly.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semantic errors is a sign of overuse or connection session.

After analyzing the data, there are three main characteristics in the use of conversation symbols by foreign discussants. First, the types of talking signs are only used. It can be seen that foreign discussants mainly pay attention to several common aspects when using session markers. In particular, the talking symbols on which claims and quotations are based are concentrated on one talking symbol. Second, use impolite gestures. Its characteristic is that foreign discussants use impolite talking symbols, which will damage each other's faces.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using conversation signs which have the functions of advocating, confirming reaction and refuting. Even if you disagree with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teach you language expression or strategy that respects each other and does not damage each other's face. The third is the use of English conversational symbols. English conversation markers such as "ok", "no", "anyway" and "so what" will be used in the discussion of foreigners. This can be confirmed not only in the speeches of foreign discussants but also in the speeches of Chinese hosts. This study holds that the coexistence of multiple languages is a characteristic, not an error.

By analyzing the data of "Informal Talks", the conclusion is that we have mastered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mistakes of foreign discussants in using talking symbols. Through this kind of work, the necessity of talking sign education has been proved. It is necessary to educate all kinds of dialogue symbols corresponding to various discussion function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ducate the strategies of choosing appropriate dialogue symbols in specific discussion situations. Considering Chinese culture, in order to respect each other and not damage each other's face, w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hinese education when using conversation signs. If they ar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discussion, conversation and covering education, this research will be very meaningful.

